

新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평가·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2007. 12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립 부

新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평가·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박 준 식 (한림대 교수, 사회학)
이 기 원 (한림대 교수, 통계학)

목 차

I . 연구의 개요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 방법	2
II .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1. 정책의 취지	3
2. 혁신 주체	5
3. 혁신 체계	7
4. 사업 내용	9
III . 新활력사업에 대한 정책 담당자 평가	13
1. 정책 담당자 평가의 취지와 방법	13
2. 新활력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대한 이해	14
3.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평가	15
4.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	19
5. 제2기 新활력사업의 추진 방향	22
6. 新활력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과 활용 방향	24
7. 新활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27
IV . 新활력사업의 성과와 평가 지표 제시	29
1. 新활력사업 추진 배경	29
1.1 개념	30
1.2 新활력사업	31
1.3 新활력사업 정책관리전략	32
1.4 정책관리전략의 재조명	33
1.5 ASP 모델	34
2. 정책수립 경과	36
2.1 추진지침의 변화	36
2.2 평가지표 분석	41

3. 성과 분석	47
3.1 지원목표와의 정합성	47
3.2 혁신역량강화 사업	48
3.3 가시적 성과의 도출	51
3.4 시군별 우수사례	58
(1) 지역혁신역량강화 중점 유형	58
(2)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창출 중점 유형	61
(3) 농도간 활발한 교류협력 중점 유형	69
3.5 기타 시·군 사례	75
3.6 부진사례	106
4. 평가지표 개발	108
4.1 공통지표	108
4.2 자체지표	110
V. 제2기 新활력사업의 추진 방향	111
1. 정책 비전, 미션, 목표의 설정	111
2. 평가를 통한 진화	112
3. 평가 체계의 설계 방향	113
VI. 결론 및 제언	115
부록	117
참고자료	130

표 차례

<표 1> ASP 모델로 재구성한 新활력사업의 기본 요소들	5
<표 2> 新활력사업에 대한 이해도	14
<표 3> 新활력사업의 차별성	14
<표 4> 新활력사업의 정책적 효과 평가	15
<표 5> 新활력사업의 핵심 요소 평가	16
<표 6> 新활력사업의 주체 육성을 위한 필요 항목	16
<표 7> 지역혁신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 항목	17
<표 8>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필요 항목	17
<표 9> FD제도의 효용성	18
<표 10> FD제도의 비효용성	19
<표 11> 新활력사업의 성공 원인	20
<표 12> 新활력사업의 실패 원인	21
<표 13> 제1기 사업의 성과	22
<표 14> 제1기 사업의 미비점	22
<표 15> 新활력사업 기간의 적절성	23
<표 16> 新활력사업 지원금의 적절성	23
<표 17> 新활력사업 담당부서의 적절성	24
<표 18> 新활력사업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한 만족도	25
<표 19> 연차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지원의 적절성	25
<표 20> 인센티브 방식의 부적절성	26
<표 21> 新활력사업 사후평가를 통한 성과부진지역 탈락 정책에 대한 필요성	26
<표 22> 新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 항목	27
<표 23> 제2기 新활력사업에 핵심 목표 항목	28
<표 24> 新활력사업의 성격 변질 과정	38
<표 25> SAP 모델을 통한 新활력사업 기획방향	40
<표 26> 新활력사업계획 평가 항목	41
<표 27> 新활력사업계획 평가 세부항목	42
<표 28> 新활력사업계획 평가표	43
<표 29> 1차년도 사업실적 평가 항목	45
<표 30> 혁신리더교육 실시 현황	48

<표 31> 지역리더발굴 현황	50
<표 32>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50
<표 33>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인구증가 현황	51
<표 34>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소득증가 현황	53
<표 35>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매출증가 현황	54
<표 36>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고용창출 현황	55
<표 37> 축제지원 등으로 인한 지역별 과급효과	56
<표 38> 지역별 향토기업육성 및 외부기업 유치 현황	57
<표 39> 지역별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	57
<표 40-1> 인제군-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 집행실태	60
<표 40-2> 인제군-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 인센티브	60
<표 41-1> 산청군-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집행실태	62
<표 41-2> 산청군-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인센티브	62
<표 42-1>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성과(고용증대)	64
<표 42-2>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성과(소득증대)	64
<표 42-3>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집행실태	64
<표 42-4>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인센티브	64
<표 43-1> 청양군-과워 7갑 특화사업 집행실태	66
<표 43-1> 청양군-과워 7갑 특화사업 인센티브	66
<표 44-1> 고창군-복분자 클러스터산업 종합발전사업 집행실태	68
<표 44-2> 고창군-복분자 클러스터산업 종합발전사업 인센티브	68
<표 45-1> 화천군-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집행실태	70
<표 45-2> 화천군-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인센티브	70
<표 46-1> 함평군-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집행실태	72
<표 46-2> 함평군-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인센티브	72
<표 47-1> 봉화군-과인토피아 봉화 新활력사업 집행실태	74
<표 47-2> 봉화군-과인토피아 봉화 新활력사업 인센티브	74
<표 48-1> 강화군-강화 특산품 브랜드 과워 창출 사업을 통한 인구변화	76
<표 48-2> 강화군-강화 특산품 브랜드 과워 창출 사업 집행실태	76
<표 48-3> 강화군-강화 특산품 브랜드 과워 창출 사업 인센티브	76
<표 49-1> 양양군-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 집행실태	78
<표 49-2> 양양군-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 인센티브	79
<표 50-1> 정선군-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집행실태	81

<표 50-2> 정선군-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센티브	81
<표 51-1> 평창군-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집행실태	83
<표 51-2> 평창군-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인센티브	83
<표 52-1> 보은군-보은 황토 특화사업 집행실태	84
<표 52-2> 보은군-보은 황토 특화사업 인센티브	84
<표 53-1> 증평군-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집행실태	86
<표 53-2> 증평군-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인센티브	86
<표 54-1> 금산군-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집행실태	88
<표 54-2> 금산군-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인센티브	88
<표 55-1> 부여군-백제왕조 굿뜨래 부여 특화사업 집행실태	90
<표 55-2> 부여군-백제왕조 굿뜨래 부여 특화사업 인센티브	90
<표 56-1> 부안군-부안 누에타운 조성 집행실태	92
<표 56-2> 부안군-부안 누에타운 조성 인센티브	92
<표 57-1> 순창군-발효천국 순창 조성 집행실태	94
<표 57-2> 순창군-발효천국 순창 조성 인센티브	94
<표 58-1> 장수군-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집행실태	96
<표 58-2> 장수군-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인센티브	96
<표 59-1> 진안군-생태건강산촌 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사업 집행실태	97
<표 59-2> 진안군-생태건강산촌 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사업 집행실태	97
<표 60-1> 영암군-氣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대방안 사업 집행실태	98
<표 60-2> 영암군-氣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대방안 사업 인센티브	98
<표 61-1> 담양군-대나무 신산업화 사업 집행실태	99
<표 61-2> 담양군-대나무 신산업화 사업 인센티브	99
<표 62-1> 무안군-무안백련클러스터 구축 사업 집행실태	100
<표 62-2> 무안군-무안백련클러스터 구축 사업 인센티브	101
<표 63-1> 보성군-녹차 중심의 복합6차 관광산업 육성 사업 집행실태	103
<표 63-2> 보성군-녹차 중심의 복합6차 관광산업 육성 사업 인센티브	103
<표 64-1> 청도군-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집행실태	105
<표 64-2> 청도군-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인센티브	105
<표 65> 혁신리더교육 평가지표	109
<표 66> 新활력사업 자체평가지표	110

그림 차례

<그림 1> 新활력사업의 융합산업 개념도	10
<그림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9
<그림 3>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30
<그림 4> 新활력지역의 개념	31
<그림 5> 新활력사업 정책관리전략	33
<그림 6> ASP 모델	34
<그림 7> SAP 모델	39
<그림 8-1>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강화군	51
<그림 8-2>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옹진군	51
<그림 8-3>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인제군	51
<그림 8-4>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순창군	51
<그림 8-5>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신안군	52
<그림 8-6>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고령군	52
<그림 8-7>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영덕군	52
<그림 8-8>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울릉군	52
<그림 8-9>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남해군	52
<그림 8-10>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의령군	52
<그림 8-11>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전체	52
<그림 9-1> 하동군 인구 변화	64
<그림 9-2> 화개면 인구 변화	64

新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평가·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박 준 식 (한림대 교수, 사회학)

이 기 원 (한림대 교수, 통계학)

I. 연구의 개요

1. 문제의 제기

낙후한 농어촌 지역에 혁신 기반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 정부가 추진하여 온 제1기 新활력사업은 중앙 정부 중심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농어촌 정책의 한계를 뛰어 넘어 지역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여 낙후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굴한 획기적인 시도였다.

2005년 상반기부터 행정부, 농림부, 균형위 등 중앙정부와 70개의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온 본 사업은 ‘주체 육성□□ (Actor), ‘추진 체계’(System), ‘혁신 사업’(Project)이라는 3개 핵심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그 각각의 요소들에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들을 지역의 주도 하에 담아내도록 하였다. 과거에 시행된 낙후지역 대상 정책들과 비교할 때 新활력사업에서는 그 추진 과정에서 과거 어떤 정책들보다 많은 혁신적 실험들이 이루어졌고,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 속에 수많은 정책적 쟁점과 담론들을 생산해 왔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 참여했던 70개 지자체들 중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 실적 부진과 추진 의지의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제2기 新활력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새롭게 13개 지역들이 제2기 新활력 지역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제1기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는 독자적인 자립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新활력 지역을 졸업하였다. 이제 新활력사업은 제1기의 성과와 한계를 뒤로 하고, 축적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기반으로 제2기를 향한 새로운 단계로의 심화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추진된 제1기 新활력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향후의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2단계 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며,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新활력사업이 지녔던 의미를 점검하고, 제1기 新활력사업의 주요한 성과를 분석한다.**

둘째, 제1기 新활력사업의 의의에 대한 **현장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를 설문 조사와 수범 사례 등으로부터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2기 新활력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제2기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성과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 지표 체계를 제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新활력사업이 낙후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자료 연구, 사례 연구, 설문 조사, 현장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1차적으로 제1기 新활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집한 사업계획서, 자체평가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 자료와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연구·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新활력사업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이었던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 전문가 대상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모두 57 명의 정책 수행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평가 결과를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新활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등으로부터 수집한 광범위한 수범 사례들과 성공 경험들을 정리하고, 그 정책적 함의들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II.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취지

新활력사업은 초기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 안고 있었던 한계를 종합적으로 뛰어 넘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사업이 정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은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온 **하향식 낙후지역 사업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 정부 스스로 사업의 전 과정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의 **기본 구도 전환**을 도모하였다.

두 번째로 본 사업은 지자체-주민-중앙정부-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스스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입안토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를 육성하는 ‘**협치적**’ 접근 방식을 **도모**해 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세 번째로 본 사업은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와 유형 자산 형성에 집중되어 온 과거의 농어촌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육성하는 데 그 어떤 사업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도하였다.

네 번째로 新활력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정책 추진 방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적합한 지역혁신 전략과 사업 내용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하에서 지방정부의 사업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컨설팅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정책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인 바 있다. 특히 新활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새로운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축적된 경험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역량을 발전시키는 현장 학습의 장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나 협력 집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의 역할을 정책 전달 체계 속에 제

도화함으로써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관련 정책 전문가 집단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실험에 과감히 도전했다는 점에서 낙후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통제와 관리, 규율 등을 중시하는 ‘통치’(government) 중심의 행정 방식으로부터 참여와 협력, 자율을 중시하는 ‘협치’(governance) 중심의 행정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도는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 추진과 정책 전달 과정에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정책적 담론’과 ‘제도적 개혁’, ‘고민의 지점’이 활발하게 제시된 것은 낙후지역 정책을 발전시키고, 내실을 기하며, 우리 나름의 고유한 농어촌 선진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낙후지역 일선 행정 담당자와 주민들의 혁신 역량을 발굴하고, 기획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공동체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향후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무형 자산’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新활력 정책의 기본 틀과 평가 체계를 구성했던 사업 추진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추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와 고민들이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제1기 新활력사업의 내용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新활력사업의 추진 체계는 이른바 ‘ASP 모델’로 지칭되는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A(Actor 또는 Innovator)는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리더, 혹은 주체로서 기업가,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연구원 등을 의미하며, S(System)는 구성원 간 네트워킹과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혁신 추진의 인적, 제도적 협력체계, 그리고 P(Program 또는 Project)는 지역혁신 주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선도 사업, 즉 新활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로 지칭한다.

新활력사업은 낙후지역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 요소로 이 세 가지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들을 낙후지역의 현장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기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기본적으로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정책으로서의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수 있었다.

<표 1> ASP 모델로 재구성한 新활력사업의 기본 요소들

핵심요소	목적	기본 내용
Actor (Innovator)	·지역혁신리더의 발굴·육성	·혁신리더 발굴 및 육성 교육 ·학습 프로그램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System	·혁신체계 구축과 조직, 제도의 정비	·新활력사업 추진조직 ·지역혁신협의회
Program (Project)	·혁신주도 프로그램 기획, 자원 발굴, 지역혁신 사업	·지역산업 육성 ·지역 브랜드 제고 ·장소 마케팅, 지역 문화 개발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ASP 모델에 기초한 사업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의 핵심 과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이 과정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지역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지거나 구축되어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2. 혁신 주체

新활력사업과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는 ‘혁신 주체’ 육성이라는 요소이다. 新활력사업이 혁신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요소투입 중심의 낙후지역 정책만으로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많은 물적 자원과 시설이 투자되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스스로 활용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안하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 즉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혁신 주체 육성의 중요성에 관심을 돌리게 된 핵심 동기라 할 수 있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지역혁신 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며, 혁신 주체들 간의 긴밀한 상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 혁신 주체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의 내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하드웨어 사업의 비중을 40-5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하드웨어 사업에 주력하려는 일부 시·군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일선 정책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군이 인재육성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투자 대신 단체장의 업적 등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드웨어 사업이나, 주민들의 민원 수요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인재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나 평가단의 의견이 일관되게 유지된 결과 해당 지자체들도 다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해 왔다.

인재 육성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투자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재 육성 사업의 결과를 당장의 단기적 사업 달성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당장의 성과를 눈으로 보여주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장기 투자가 중시되는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낙후지역 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인재 육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 정책은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新활력사업이 지향하는 혁신주체 육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1기 新활력사업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의 ‘기준’과 ‘사명’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명확히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인재와 지역 외 인재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형성, 그리고 현재의 혁신 리더와 미래의 혁신 리더들 간에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지역 인재 육성이 지향하는 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의 내실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드웨어 사업은 시설이나 건물을 만들고, 장비를 구축하면 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훨씬 많은 고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당초 추구하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공급자 중심 모드로부터 수요자 중심 모드로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재의 육성을 단지 교육 몇 회, 사람 몇 명, 모임 몇 회 하는 식의 성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재육성 사업의 본질과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훌륭한 인재와 인물의 혁신적 아이디어나, 주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러한 방식의 인

재 육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에 적합한 인재육성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내용에 맞는 ‘맞춤식 인재 육성’ 전략이 마련되고**, 이를 실현에 옮기기 위한 노력에 지역 내외의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인재 육성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들이 떠나고 공동체가 와해된 지역에 인재가 고갈되었다면, 외부로부터 사람을 수혈하기 위한 노력도 가능할 것이다. ‘인재 전쟁’에서의 성패가 경쟁의 명운을 좌우하는 오늘날의 혁신 주도 경제에서는 지역도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발한 정책과 전략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창의적 인재만이 지식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서도 상식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혁신 체계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이 도입될 때 참여 주체, 의사결정, 전달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을 가늠케 하는 핵심 요소이다. 정책의 추진 체계가 중요한 것은 이 체계를 통해 의제가 형성되고, 이해가 조정되며,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방향이 제시되며,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기준 등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의 추진 체계를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新활력사업은 기존의 정책수행 체계를 과감히 벗어난 선진적 ‘거버넌스’ 모델을 낙후지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주민-외부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수행 체계 구축을 시도한 바 있고, 이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외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新활력사업의 추진 방식은 몇 가지 점에서 그 긍정적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시도가 단기에 가시적인 물질적 혜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유·무형의 ‘보상’(benefits)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新활력사업은 기존의 행정 중심 사업수행 방식으로부터 네트워크 중심의

참여적 거버넌스 방식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도모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의 낙후지역들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 주민 간 ‘사회적 신뢰’, 혹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급속하게 소멸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체 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복구와 축적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혁신 의지가 사라지며, 공동체 네트워크가 붕괴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사업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였지만, 지금까지의 낙후지역 정책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투자를 경시해 왔기 때문에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新활력사업은 정책의 내용 속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포함하는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정책들과 그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그러한 문제제기의 타당성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 新활력사업의 협치 모델에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또 하나의 관 주도적 조직이며,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 기득권 집단들로 구성된 준 행정 조직이라는 비판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대목이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서 행정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지역혁신협의회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낙후지역의 현장에서 남성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지역 협의체의 주민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부진했다. 낙후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들은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 시정되어야 할 대목이다.

다른 한편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혁신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축소 내지는 형식적으로 흐르고, 지자체 공무원 중심의 사업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해 온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들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新활력사업의 추진 주체가 공무원 중심으로 갈 경우 결국 모든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방식은 ‘정책 수요자’인 주민보다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의

주도로 수행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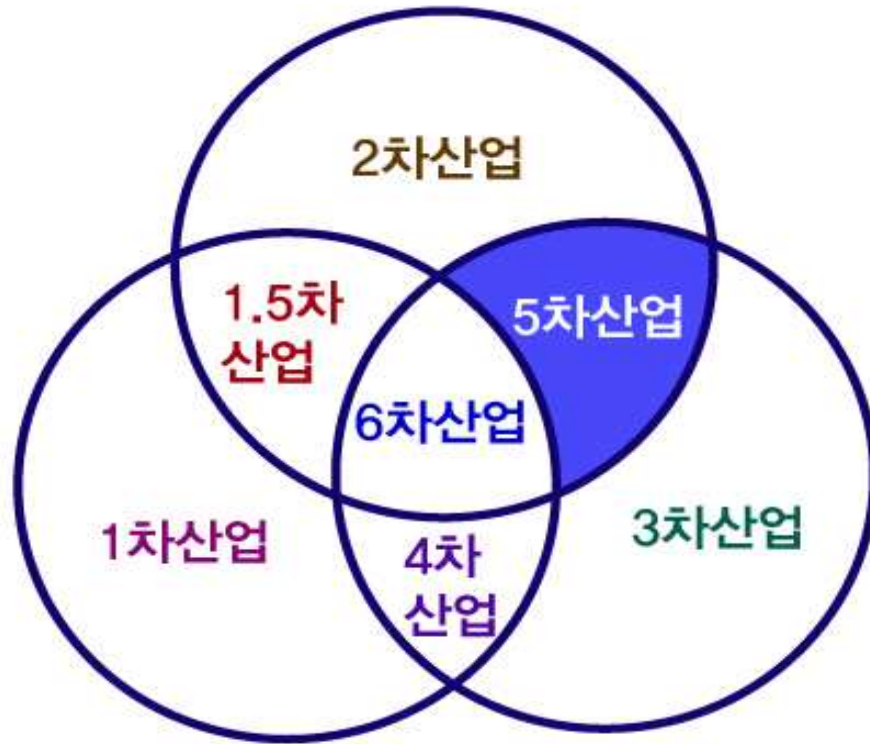
공급자 중심의 사업 방식은 결국 사업의 내용보다는 사업의 절차나 관료적 과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예산 운용 방식이나 평가 절차 등 ‘관료적 관행’에 사업 과정이 종속되어 내용 중심의 유연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 경우 新활력사업에서 애초에 추구하던 참여적 거버넌스의 목표와 효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책의 추진 체계와 의사결정 방식에서 정책의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업 내용

新활력사업은 ‘콘텐츠’ 측면에서도 기존의 농어촌 투융자나 낙후지역 개발 사업과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추진되었다. 과거의 낙후지역 지원 사업들은 ‘농림업’, 혹은 ‘어업’ 등 특정 단일 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1차 산업부터 2-3차 산업의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 산업’ 육성 개념은 생각할 수 없었다. 반면 新활력사업은 낙후지역 혁신을 특정 업종이나 산업에 국한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러 산업과 업종의 복합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낙후지역 활력 증진에 두었기 때문에 과거의 농어촌 낙후지역 지원 정책과 그 성격을 차별화시킬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新활력사업이 단순히 특정 업종에 한정된 효과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을 결합시켜 공간과 장소의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었던 것,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각종 축제와 문화적 이벤트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농림수산업과 관련 서비스 부문의 수준을 한 단계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 등은 단순히 고용 증가나 인구 유출 억제, 혹은 소득 향상과 같은 표면적인 계량적 지표의 변화 이상의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다.

다른 한편 新활력사업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흐름과 잘 연결되어 지



<그림 1> 新활력사업의 융합산업 개념도

역 간에 선의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新활력사업을 통해 개발된 각종 이벤트와 문화 행사, 특산품 등은 지역의 명성을 높이고, 장소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민들의 정주의식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pride)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新활력사업 참여 지자체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을 알리기 위한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지역 마케팅’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주민들 역시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됨으로써 향토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었던 것이다.

제1기 新활력사업은 농촌사회에서 ‘실험정신’과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자체들 간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차별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지역들은 창의적인 사업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들은 전부터 발전해 오던 지역 산업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인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고, 많은 사업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창조적 기획 역량과 치밀한 전략, 주민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성공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공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성공의 연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新활력사업은 단순히 단일 산업이나 품목 등의 육성에 치우치는 일차원적 사업의 개념을 탈피하여 전통과 혁신 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키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농촌사회 개발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성공을 위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 등에 한정된 ‘업종 정책’이 아니라 농촌사회 전체의 역량을 한 단계 고양하는 ‘농촌 정책’, 혹은 ‘지역 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차별화 경쟁을 촉진하여 기존 콘텐츠 뿐 아니라 향후 개발가능성이 무한하고 창조적으로 응용 가능한 콘텐츠들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장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냈는가’, 혹은 ‘인구 감소를 얼마나 막을 수 있었는가’ 등과 같은 물량 위주의 재정적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더불어 지자체 스스로 新활력사업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 등을 제시토록 유도하고,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 정도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기준과 틀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 및 문화적 목표들을 만들고, 이러한 요소들을 지역 스스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재정이나 고용, 인구 목표 달성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의 조건을 닦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목표이며, 新활력사업만의 차별화 된 정책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제2기 新활력사업은 제1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시행착오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제1기 사업의 진화과정 속에서 제2기의 추진 방향이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제2기 新활력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우리는 ‘마케팅’과 ‘차별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마케팅이란 생산자, 혹은 공급자가 만들어 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생산된 가치가 소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新활력사업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판로확보를 통해 소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공급자 중심의 농촌, 혹은 농업정책에서 간과되었던 핵심 요소가 바로 ‘마케팅’의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잉생산 문제도 결국은 효과적인 마케팅과 소비 기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한 지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고객을 중시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소’(just in case)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just in time)에 공급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는 모든 시·군들이 그들 나름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소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新활력사업의 주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차별화 능력이다. 제1기 新활력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적 정체성을 차별화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기 新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들은 이러한 문제와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차별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품목을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新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두 지역들 간에는 분명한 차별화 전략이 존재해야 한다. 다른 한편 **두 지역들 간의 긴밀한 경쟁과 협력체계 속에서 시장을 확대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평가 장치가 없었던 관계로 지자체들의 중복 사업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III. 新활력사업에 대한 정책 담당자 평가

1. 정책 담당자 평가의 취지와 방법

新활력사업은 정책 개념 측면에서 기존의 중앙 집권적 접근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자체들마다 자신들의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고, 역량을 구축하여,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추진 방식은 지역의 자체 기획 및 사업 추진 능력을 구축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낙후지역 혁신 정책의 현장 담당자들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지역 간 경쟁이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전례 없는 새로운 과제들에 도전해야 하는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新활력사업은 일선 현장의 정책 수행 담당자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방법과 비전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新활력사업의 과정과 성과, 향후의 방향에 대한 현장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7년 9월23일부터 2007년 10월22일까지 新활력사업 관련 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결과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은 57명이었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을 보면, 94.5%의 응답자들이 新활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었고, 5.5%가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70개 新활력 지역을 전부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新활력 지역의 81.4%에서 정책과 관련된 핵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新활력지역 정책 담당자들의 81.5%는 남성이었고, 18.5%만이 여성이었다.

2. 新활력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新활력사업의 정책적 취지와 성격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낙후지역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농·산·어촌형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려는 新활력사업의 정책 취지와 비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표 2>).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7%가 新활력사업의 정책적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는 新활력사업의 추진 초기 단계에 본 사업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불과 3년 만에 대다수 담당자들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新활력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는 이 사업의 추진 초기와 비교할 때 높아졌음을 말해주며, 제2기 新활력사업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빈도	퍼센트
유효	잘 이해하고 있다	42	73.7
	이해하는 편이다	15	26.3
	합계	57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전적으로 차별되어 있다	18	31.6
	차별되어 있는 편이다	27	47.4
	그저 그렇다	9	15.8
	차별되어 있지 않다	3	5.3
	합계	57	100.0

다음으로 新활력사업과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의 압도적 다수인 78.9%가 ‘전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31.6%)와 ‘차별화되어 있는 편이다’(47.4%)에 응답하고 있다(<표 3>).

이는 기존의 낙후지역이나 농어촌 개발 사업, 혹은 보조금 중심의 지역개발 사업들과 비교할 때 新활력사업이 낙후지역 지원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일선 정책 담당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新활력사업이 기존 정책들과 비교할 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1%에 지나지 않았다.

新활력사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이들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 능력의 부족,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 문화 미성숙, 사업 내용의 차별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新활력사업이 낙후지역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니는 고유의 정책적 목표와 사업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채우고, 정책 담당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평가

이 절에서는 제1기 新활력사업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新활력사업이 추구해 온 정책적 비전 중 가장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의 응답을 점검해 본 결과(<표 4>) 전체 응답자의 70.2%가 본 사업이 ‘낙후지역 농산어촌의 자립적 혁신 역량 강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5.8%의 응답자들이 ‘도농상생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4.0%는 산업 활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도시와 농촌의 농도상생(農都相生) 관계 형성	9	15.8
	낙후지역 농산어촌의 자립적 혁신 역량 강화	40	70.2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	8	14.0
	합계	57	100.0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볼 때 新활력지역의 담당자들은 新활력사업이 낙후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여 조화로운 사회 통합

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혁신주체 육성	18	32.1
	지역혁신 체계 형성	11	19.6
	지역혁신 사업	27	48.2
	합계	56	100.0

다음으로 新활력사업의 핵심 정책 목표였던 혁신 주체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 사업의 성과에 대해 48.2%의 응답자들이 ‘지역혁신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표 5>). 다음으로 32.1%의 응답자들이 ‘혁신주체 육성’ 부문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9.6%는 ‘지역혁신 체계 형성’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적, 제도적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문제에서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유효	인재육성의 기준과 사명 구체화	5	8.8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19	33.3
	맞춤형 인재 육성 전략	26	45.6
	외부전문가 활용 극대화	7	12.3
	합계	57	100.0

新활력사업의 세 가지 핵심 목표들 중 지역혁신 주체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재육성 전략’의 필요성에 45.6%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지적하는 응답이 33.3% 정도였다. 이에 반해 ‘외부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12.3% 수준에 머물렀다(<표 6>).

이러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향후 新활력사업의 주체 육성을 위한 노력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 인재 육성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지역혁신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새로운 사업 수행체계 구축	16	28.1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7	12.3
	중앙정부의 예산운용 방식이나 평가절차 등 관료적 관행 탈피	13	22.8
	지역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21	36.8
	합계	57	100.0

지역혁신 추진체계 구축에 대해서(〈표 7〉)는 응답자의 36.8%가 ‘지역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8.1%의 응답자들이 지자체, 중앙정부, 외부 인적자원 등 보다 폭 넓은 사업수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22.8%의 응답자들이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운용이나 관료적 관행으로부터의 탈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12.3%는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볼 때 정책 수행 담당자들은 사업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복원 등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외부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新활력사업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여러 사업의 복합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22	38.6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지역마케팅 실현	12	21.1
	농촌지역의 실험정신, 기업가 정신 활성화	2	3.5
	전통과 혁신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농촌사회개발	21	36.8
	합계	57	100.0

혁신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응답을 보면(<표 8>), ‘다양한 사업의 복합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38.6%)와, ‘전통과 혁신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농촌사회 개발’(38.8%)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지역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1.1%가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新활력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자체의 고유한 혁신 요소와 자원을 1,2,3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경제 활동들과 창의적으로 결합시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9> 제1기 사업에서는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해 FD(Family Doctor)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도움이 되었음	27	49.1
	그렇지 못함	20	36.4
	모르겠음	8	14.5
	합계	55	100.0

다음으로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 처음 도입한 바 있는 ‘지역혁신자문관 제도’, 일명 FD(Family Doctor) 제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49.1%로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 36.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9>).

FD 제도에 대해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성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 또한 무시 못 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제도가 갖고 있는 애초의 긍정적인 취지와 장점을 살려 나아가되, 제1기 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FD 제도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경우 가장 많은 42.9%가 FD의 ‘적극성과 책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표 10>). 또한 23.8%는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열정 부족’을 거론하고 있고, 19.0%는 ‘의사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4.3%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FD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FD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참여 의지가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FD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전문성 결여	3	14.3
	적극성과 책임성 결여	9	42.9
	거리와 시간상의 문제로 원활한 소통 부족	4	19.0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열정 부족	5	23.8
	합계	21	100.0

4.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

新활력사업은 지역에 대해 기획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한편, 그러한 기획의 결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해 왔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정밀하게 기획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으로서 新활력사업의 성공 여부 뿐 아니라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이 절에서는 新활력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현장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新활력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의 ‘유형적’, ‘형식적’ 측면보다는 ‘무형적’, ‘내용적’ 측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新활력사업의 성공 이유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新활력사업이 양호하게 진행된 지역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44.6%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인재육성, 기술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소프트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6.3%의 응답자들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추진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16.1%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지속 가능한 혁신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소비자들의 욕구(Needs)를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	2	3.6
	차별화된 상품 공급	1	1.8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활용	4	7.1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전담사업반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기반 구축	15	26.8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계 구축	9	16.1
	인재육성, 기술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소프트 사업 발굴과 추진	25	44.6
	합계	56	100.0

이와 같은 응답을 종합해 볼 때 新활력사업의 성공은 건물이나 설비 등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이상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인적자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 활성화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거의 농어촌 지원 사업이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 지원에 머물렀던 것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농어촌에서도 선진 경제사회 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는 ‘무형 자산’과 사람들의 능력, 브랜드 가치 등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키워가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지역의 활력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新활력사업은 농어촌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는 新활력사업이 부진한 경우, 그 주요 사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新활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지역들의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다(28.6%). 또한 25.0%의 응답자들은 자체의 아이디어가 없는 ‘외부 용역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14.3%의 응답자들이 서로 연계가 없는 ‘백화점식 사업 구상이나 단위 사업들 간의 연계성 결여’를 실패의 주요한 사유로 지적한다.

부진 지역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결국 지역이 지니는 ‘무형의 능력’이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형자산 이상으로 무형자산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그 지역만이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입안하여, 자체의 혁

신 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新활력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의 실패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지역혁신협의회의 형식적, 행사성 위주의 활동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미흡	3	5.4
	백화점식 사업구상 및 단위 사업간 연계 미흡	8	14.3
	과도한 하드웨어 사업	5	8.9
	단순보조 사업으로 기존 농림사업과 차별화 부족	3	5.4
	인적 역량 부족	7	12.5
	적절한 지역경제활동 없이 연구용역, 교육, 기술개발 및 브랜드 개발에만 치중	14	25.0
	지역발전 역량 강화와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16	28.6
	합계	56	100.0

제1기 新활력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잘 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42.6%). 다음으로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에 33.3%의 응답들 차지했으며, 24.1%는 ‘지역 홍보와 마케팅 강화’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新활력사업이 기여한 바 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표 13〉).

이는 新활력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경우 지역의 인적자원 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축적은 물론, 생산과 소득 기반 형성 및 지역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중요한 혁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3〉 제1기 사업에서 가장 잘 달성된 것은?			
		빈도	퍼센트
유효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23	42.6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18	33.3
	홍보·마케팅 강화	13	24.1
	합계	54	100.0

〈표 14〉 제1기 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은?			
		빈도	퍼센트
유효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12	22.2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15	27.8
	삶의 질 향상	14	25.9
	홍보·마케팅 강화	9	16.7
	사업관리 등	4	7.4
	합계	54	100.0

향후 新활력사업의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27.8%의 응답자들이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5.9%가 ‘삶의 질 향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22.2%의 응답자들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표 14〉).

이는 新활력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이라는 경제적 차원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그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제2기 新활력사업의 추진 방향

新활력사업은 이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미래와 비전, 목표와 지향에 대하여 정책 공동체의 인식을 한층 두텁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 및 평가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필요와 관련하여 제2기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선 新활력사업의 기간에 대해서는 83.9%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현재와 같은 3년 주기로 최대 9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표 15〉). 이는 新활력사업에서 애초에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 안목의 단계적 지원 전략이 일선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지원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단기 지

원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新활력사업의 지원은 1차 지정시 3년간 지원, 최대 3차 9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적절하지 않음	7	12.5
	적절함	47	83.9
	모르겠음	2	3.6
	합계	56	100.0

新활력사업의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하여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연간 19~29억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 다수인 66.1%의 응답자들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新활력사업의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의 수준에서 지역의 낙후도와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기존의 방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16>). 이에 반해 이러한 지원 규모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하는 32.1%의 응답자들은 지원 규모를 현행 수준보다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중앙정부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연간 19~29억 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적절하지 않음	18	32.1
	적절함	37	66.1
	모르겠음	1	1.8
	합계	56	100.0

향후 新활력사업의 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39.3%의 응답자들이 ‘농정부서’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5.0%는 ‘신설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21.4%의 응답자들은 ‘기획총괄부서’를 지목하였다(<표 17>).

이렇게 볼 때 新활력사업의 추진 조직은 대체로 농정 관련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직과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부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정 부서가 전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서의 조직과 기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17> 新활력사업은 지자체의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신설전담부서	14	25.0
	행정자치부서	3	5.4
	기획총괄부서	12	21.4
	농정부서	22	39.3
	기타 관련 사업부서	5	8.9
	합계	56	100.0

新활력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 주체들 간의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성공의 필수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역량 형성이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담당 부서들은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이 지닌 네트워크와 사람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新활력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과 활용 방향

新활력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엄정한 평가를 중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사업들이 모든 지역들에게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지원을 하던 방식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로 볼 수 있다. 사업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중시하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기초 위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서 기존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新활력사업의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33.3%의 응답자들이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는 응답을 보인 반면, 20.4%의 응답자들은 ‘불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표 18>).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6.3%를 차지하여, 기존의 평가 방식에 대해 만족이 불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역시 무

시 못 할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일정한 정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빈도	퍼센트
유효	매우 만족한다	4	7.4
	만족한다	14	25.9
	그저 그렇다	25	46.3
	불만이다	11	20.4
	합계	54	100.0

기존 사업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들을 검토해 보면, 장기적 성과 목표와 단기적 성과 목표의 차별화, 성과 지표의 획일성, 특수한 지역적 여건에 대한 고려, 집행 중심의 평가 방식, 1년 단위 사업 평가 방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홍보와 대외적 과시 위주의 사업 수행 방식이나 수범사례 선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일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새로운 평가 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적인 국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빈도	퍼센트
유효	적절함	27	50.0
	그렇지 못함	24	44.4
	모르겠음	3	5.6
	합계	54	100.0

연차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달하는 50.0%의 응답자들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반응은 44.4%였다(<표 19>). 전체적으로 볼 때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의 정당성과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인센티브 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新활력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7	31.8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	12	54.5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	3	13.6
	합계	22	100.0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사유를 보면, 54.5%가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지역적 사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31.8%는 ‘낙후지역 지원이라는 新활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표 20〉).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新활력사업의 장·단기 성과 목표를 분리하여 지자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시토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 귀하는 新활력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부진 지역을 일정한 부분 탈락시키는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아주 필요하다	5	9.3
	필요하다	17	31.5
	잘 모르겠다	4	7.4
	필요하지 않다	17	31.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20.4
	합계	54	100.0

新활력사업에서는 엄정한 현장 평가를 통해 부진 지역과 우수 지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엄격히 적용해 왔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실적 부진 지역들에 대해 지원 중단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처럼 엄격한 평가 관리는 新활력사업 주체들에 대해 최고의 긴장과 경쟁 문화를 활성화시켜 성공적인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정한 평가 방식에 대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소의 어려움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新활력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부진 지역을 탈락시키는 정책”에 대해 51.9%의 응답자들이 ‘필요하

지 않다'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40.8%의 응답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거나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표 21>).

그러나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사업 담당자들의 여론만을 중시할 수는 없으며, 다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역들이 이러한 평가의 혜택을 봄으로써 우수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도 엄정하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및 관리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新활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본 연구에서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제2기 新활력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현장 담당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 <표 22>이다.

<표 22> 귀하는 제2기 新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지자체 스스로 지향하는 사업의 정체성과 내용에 대한 고민 공유	37	68.5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8	14.8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7	13.0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평가결과의 엄격한 적용	2	3.7
	합계	54	100.0

<표 22>에서 제2기 新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응답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인 68.5%가 '지자체 스스로 지향하는 사업의 정체성과 내용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혹은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의 지원과 협력'은 각각 14.8%와 13.0% 정도의 응답에 그쳤다.

지자체 스스로 자신의 발전과 활력 향상 방향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자신의 사업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내용을 끊임없이 향상,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여야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3> 귀하는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어떤 목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다양한 관련 사업간의 사업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유기적인 연계방안 강화	24	43.6
	농어촌지역 활력을 위한 시군단위 계획제도 도입	9	16.4
	지자체의 기획 역량과 인적자원 능력 개발 강화	6	10.9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으로의 新활력사업의 정체성 확립	16	29.1
	합계	55	100.0

제2기 新활력사업의 목표와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자들은 ‘다양한 관련 사업들 간의 목표와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유기적인 연계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다(43.6%). 다음으로 29.1%의 응답자들은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新활력사업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지역의 기획력과 인적자본 능력 개발’, ‘농어촌지역 활력을 위한 시군 단위 계획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10.9%와 16.4%가 응답하고 있다. 이는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는 보다 분명한 사업 목표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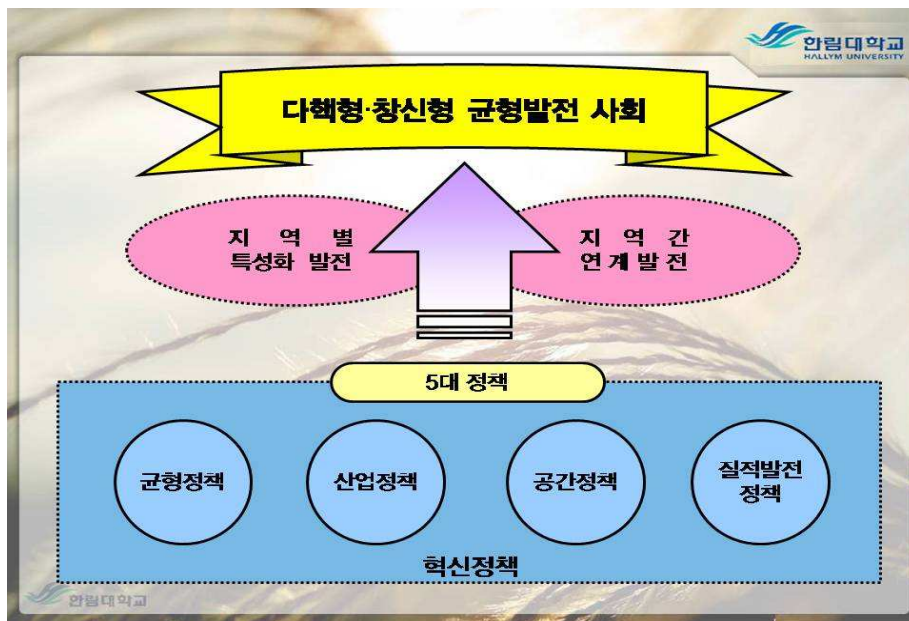
IV. 新활력사업의 성과와 평가 지표 제시

1. 新활력사업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¹⁾를 추구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요약하면 지역별로는 특성화, 지역 간에는 연계발전을 도모하여 다핵형·창신형 균형발전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화라는 추진방향은 1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과정의 新활력사업과 같은 상향식 과제 발굴과 같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특성 있다고 생각하는 향토자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의 연계·협력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일극집중에서 비롯되는 고비용-저효율의 국토이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토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에 다수의 발전거점을 육성하는 다핵형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한편, 비용우위와 투입확대를 추구하는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이 아니라 혁신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



<그림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 청와대브리핑, 참여정부>국정원리와 목표

혁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협의회 · 지방 R&D 역량 강화 · 지역혁신리더 양성 · 누리사업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균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활력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 육성 · 대덕 R&D특구 육성 · 농산업클러스터 · 오송생명과학단지 ·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문화산업클러스터
공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 · 기업도시 건설
질적발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질적발전 정책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림 3>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창신형(创新型) 발전모델**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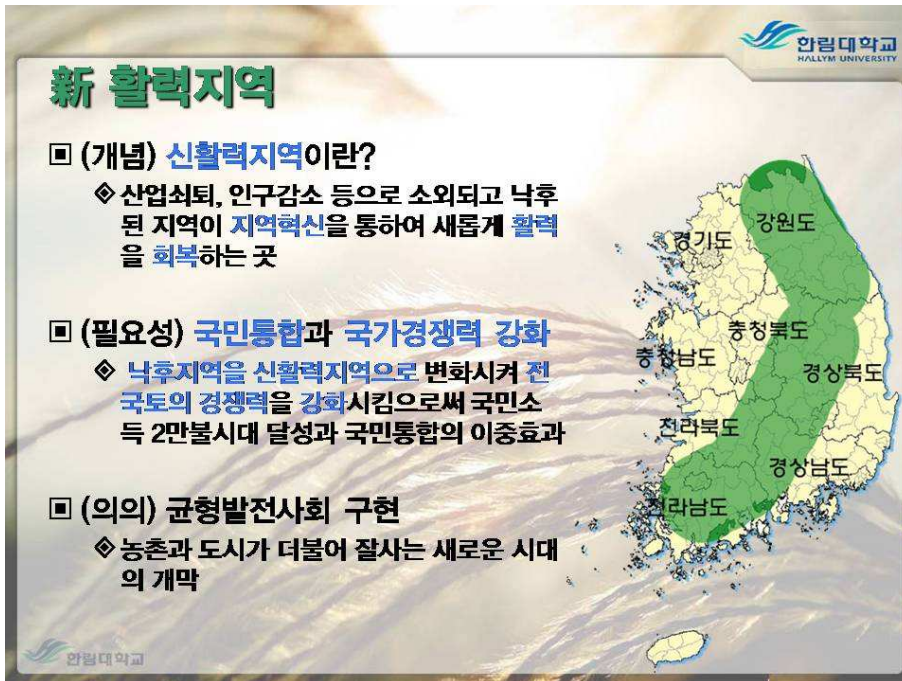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모든 정책이 동등한 위상에 있는 게 아니고 혁신정책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다핵형·창신형 균형발전사회를 추구한다는 비전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모든 정책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공통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뚜렷이 알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이다.²⁾

이와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내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혁신정책을 토대로 균형, 산업, 공간, 질적 발전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였는데 **新활력지역 발전구상**은 이 중 균형정책에 속한다.

1.1 개념

2004. 7. 15일 발표한 **新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정의한 **新활력지역**의 개념은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그림 4> 新활력지역의 개념

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이다. 이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혁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서 이 구상이 나왔으며 구체적으로는 “낙후지역을 新활력지역으로 변화시켜 전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과 국민통합의 이중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여다보면 낙후지역이 곧 新활력지역이 아니라 낙후지역이 혁신하여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 것이 新활력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혁신의 불씨를 당겨줄 것이냐? 그 답이 바로 新활력사업이다. 新활력사업은 바로 낙후지역을 新활력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사업이다.

1.2 新활력사업

역시 같은 新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新활력사업이란 바로 新활력지역 재정지원사업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목표는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지원에 치우쳤던 것과는 달리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어느 순간 낙후지역과 新활력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낙후도

가 현저한 70개 지역을 먼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지역, 즉 新활력 지역, 으로 선정하여 고시하고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펼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기 사업에서는 낙후도가 현저한 지역들이 그대로 新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지만, 3년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新활력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진지역은 퇴출하고 월등히 낙후도를 개선한 지역은 졸업시키는 지원방침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2기 新활력지역의 선정이 단순히 낙후도 차상위지역을 기계적으로 고시하지 않고 공모와 계획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또한 낙후 지역 중에서 新활력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다.

1.3 新활력사업 정책관리전략

新활력사업이 예산과 지침만 가지고 수행하던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정책과 다른 점은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관리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5>).

세 가지 정책관리전략 중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지역혁신역량강화 전략이다. 이는 혁신주체(Actor)들이 체계(System)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선도사업(Project or Program)을 수행한다는 전략의 첫 글자를 따서 ASP모델이라고 부른다. 혁신주체들을 키우고 이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환경의 토대 위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수행하여야 지속가능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 전략이야말로 新활력사업을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정책과 차별화하는 가장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생산(1차)과 가공(2차), 그리고 유통 및 체험(3차)이 잘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을 창출하여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아마도 이 전략이 가장 우리의 新활력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절실했던 모양이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전략에 집중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 확대, 가공공장 및 유통센터 설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끝으로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은 도시의 휴양·은퇴 수요를 농산어촌으로 끌어들이고, 농산어촌은 친환경·웰빙·농촌체험의 거점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림 5> 新활력사업 정책관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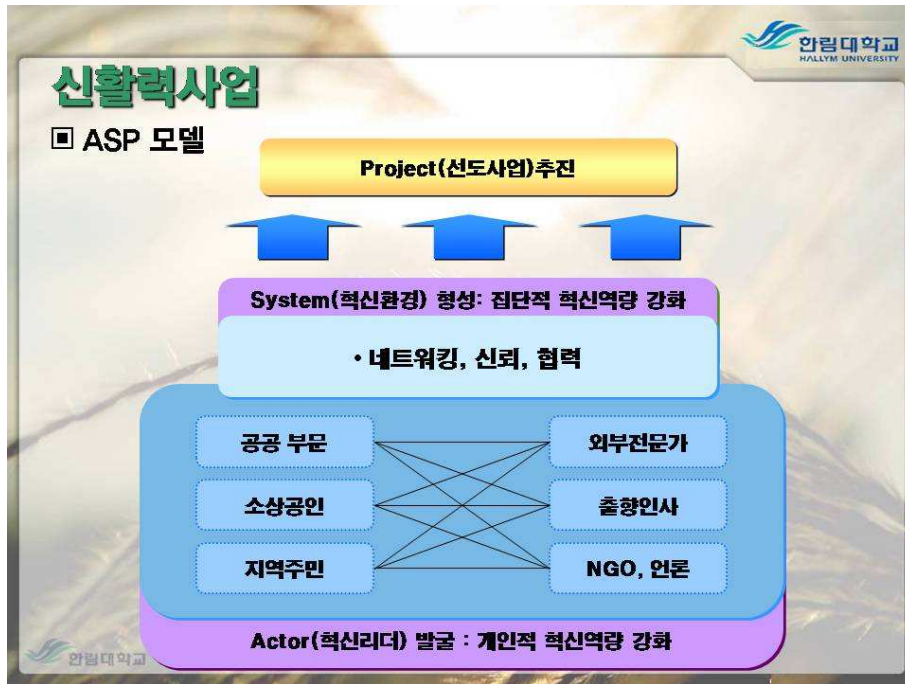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1.4 정책관리전략의 재조명

新활력사업의 3대 정책관리전략으로 도입한 ①ASP모델 기반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②1-2-3차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6차산업 창출, ③농·도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잘 살펴보면 ②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주도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고, ③의 경우 VIS유형의 마을단위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新활력사업은 결국 낙후지역에서 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②산업주도형과 ③마을주도형의 다양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체계 형성을 촉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 가지 정책관리전략 중에서도 ①을 유난히 강조하여야 하는 이유는 ②와 ③을 이끌어갈 혁신주체와 조직을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②와 ③은 사실상 ASP모델의 Project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新활력사업의 정책관리전략은 모두 ASP모델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1기 실적평가와 2기 지역선정을 위한 계획평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1기 사업은 AS에 국한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P라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설사업에 목말라하던 지



<그림 6> ASP 모델

역에서 HW비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것이다.

新활력사업은 이와 같은 개념을 부처 담당자, 광역지자체 담당자, 新활력 지자체 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이 공유한다는 가운데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은 모두 다르지만 사람과 조직의 혁신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한다는 정책 취지는 동일하다.

1.5 ASP 모델

ASP모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그림 6>) 맨 밑에 혁신리더를 발굴하는 과제가 들어 있다. 新활력사업은 이와 같이 사람을 중시한다. 혁신주체들의 유형을 보면 공무원,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주민이 있고 지역 밖에 있는 외부전문가, 출향인사, 그리고 NGO나 언론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각각 연결고리 없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ASP모형은 이들을 신뢰와 협력으로 네트워킹하여 집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지속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新활력지역의 경우 공공부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긴 세월 중앙의 통제와 지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기획하는 역량이 매우 떨어져 있을 뿐이다.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의 성과가 결정

날 정도로 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평가하더라도 결국은 담당자의 기록관리 능력과 보고서 작성 능력, 그리고 발표력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실제 그런 능력을 갖춘 담당자가 사업 수행도 잘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新활력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산업은 거의 없고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주민들인데 농사만 짓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新활력지역의 경우 읍 지역을 제외하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곳이 대부분이다.

이 내부 인적자원만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고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나 출향인사가 자문활동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의 자생적인 NGO나 언론도 함께 해야 하는데 新활력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첫 연결고리는 대체로 공공부문과 외부전문가 사이에 생긴다. 新활력사업 이전에도 이들 간의 고리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과 소상공인, 공공부문과 지역주민과의 고리가 하향이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연결고리를 상향시키는 방법은 단지 민원이라는 형태로 존재할 뿐이었다. 新활력사업에서는 ASP모형을 제시함으로 공공부문과 외부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연결고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의 기본골격이 되는 것이다.

관-주민-외부전문가의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지역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분야별 연구회나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인적네트워크가 가동되면 혁신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이 선도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ASP모형이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며, 이 모델은 우리의 전통적 사고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2. 정책수립 경과

2.1 추진지침의 변화

2004. 7. 15 국정과제보고자료[1]는 “『新 활력지역』 발전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곧 화천-양구-인제 지역혁신연구회의 연구·검토대상이 되었으며, 이 자료와 함께 동년 9월에 균형위와 공동추진단이 만든 “新활력사업 추진지침”[2], 동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동명의 추진지침[3]을 놓고 지역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보고자료[1]의 1쪽에서 新활력지역의 개념에 대하여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라고 정의한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지역개발이 아닌 지역혁신이 무엇이나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졌으며, 이 부분은 향후 新활력사업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S/W사업과 H/W사업의 비중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

당초의 新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놓고 볼 때 혁신주도형 자립적 지방화를 목표로 하였던 것이 분명하나 위와 같은 지역 단위 논의과정에서 혁신적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H/W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침에서 H/W사업을 허용하고 이를 근거로 H/W 위주의 사업계획들이 올라오게 되었다.

9월에 나온 新활력사업 추진지침[2]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新활력사업 요건으로 7.15발전구상[1]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반영하라고 다소 애매하게 규정하면서도 2쪽의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제3호에서는 “지역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육성 및 그 육성을 위한 S/W개발과 상호학습 및 교육개발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4호에서 “H/W건설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설 건립의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H/W사업들이 대거 등장하는 빌미가 된 점이다.

당시 지역에서 논의하기로는 20~30억으로 S/W사업이나 교육개발 사업을 하기에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으나 지금 시점에서 사업 취지를 돌아볼 때 상호학습이나 교육개발사업에 필요한 H/W로 국한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S/W 개발과 상호학습 및 교육개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반려하거나 강력하게 탈락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업계획 컨설팅이나 실적평가 과정에서 상호학습이나 교육개발사업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면 지역, 특히 新활력사업 추진 부진지역에서 나오는 핑계의 대부분은 (1) 해본 적이 없다, (2) 지역에 대학이 없다, (3) 하려고 해도 적합한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균형위의 지침[2]이 I. 기본사항, II.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III. '05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등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자부의 지침[3]은 I. 정부의 新활력지역 발전구상 개요, II. 新활력지역의 선정, III. 新활력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IV. 新활력사업 추진 개요, V. 新활력사업 추진지침, VI. '05년도 新활력사업 추진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도 新활력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S/W 및 Brain Ware 사업에 중점”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낙후사업이 H/W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비교하고 있으나 “S/W 개발 중심으로 하고 H/W사업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균형위 지침[2]보다 한발 물러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호학습이나 교육개발 사업”에 대한 문구가 아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의 붙임자료에서는 [2], [3] 공히 新활력사업과 기존 낙후사업과의 비교에서 사업내용을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SOC 건설, 생활·정주 환경 개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동년 12월에 발표한 “新활력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요령”[4]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균형위의 지침이나 행자부의 이전 지침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新활력사업과 기존의 낙후사업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일반적 이해 차원에서는 여전히 新활력사업과 기존의 낙후사업의 차이를 S/W분야와 H/W분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지만 新활력사업의 범주를 나누는 단계에서는 이를 크게 ①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②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③공공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④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분류하고, 난데없는 “고슴도치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마치 ①유형과 ②유형을 함께하면 고슴도치가 아닌 여우형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부터 균형위 지침[2]에 명기되어 있던 “S/W 개발과 상호학습 및 교육개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②유형만 올리거나 ①유형을 양념 수준으로 끼워 넣는 계획들이 등장하게 된다. 더욱이 행자부

계획수립지침[4]의 6쪽에서 “지역소득기반 창출과 관련된 시설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음 논의 대상은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 시설비 지원을 허용하느냐로 귀착되고 당초 취지 중 하나였던 상호학습 및 교육개발사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新활력사업의 성격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新활력사업의 성격 변질 과정

구분	사업내용에 관한 기술
9월(균형위)	3. 지역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육성 및 그 육성을 위한 S/W개발과 상호학습 및 교육개발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H/W 건설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10월(행자부)	o S/W 개발 중심으로 하고 H/W 사업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12월(행자부)	S/W 위주의 사업계획수립 원칙은 기존 낙후지역사업의 경우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건설, 하천정비, 회관건립 등 정주생활환경 개선 등에 집중되는 것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소득기반 창출 등과 관련된 시설비 지원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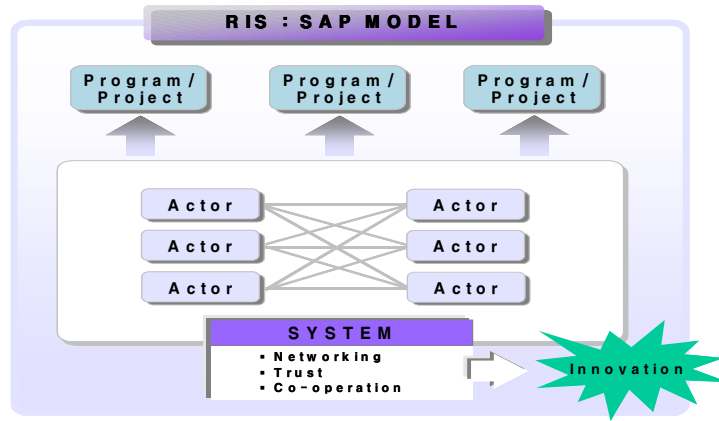
행자부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요령[4] 이후 여전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서 균형위에서는 新활력사업 추진모델로 SAP를 제안[6]한다. 짧지만 간략한 이 모델에서 나온 얘기들은 “당장 잡아먹을 물고기”와 “물고기를 잡는 법”의 비유를 비롯하여 新활력사업의 본 취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안들로서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 <그림 7>의 설명과 같다. 여기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tor육성을 위한 B/W사업과 System구축을 위한 S/W 사업은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했다.

당시 지역순회설명회 평가보고서[5]를 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부분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분석이 피상적이고 혁신역량제고에 인식하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S/W사업에 대한 인식도 설명회 개최로 많이 제고되었으나 아직도 H/W사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접시군과 연계는 미흡한 단계이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인식도 대부분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소지역주의에 기인한 사업 나열도 눈에 띄고 있었다.

新활력시군이 사업계획수립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 계기는 SAP 모델을 ASP모델로 바꾸면서 제시한 사업계획예시모형 덕분이었다. 매우 구

新활력사업을 위한 SAP 모델

□ SAP 모델의 구성요소



- **S(System)** : 구성원간에 네트워킹과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부구조가 되는 시스템
- **A(Actor 또는 Innovator)** :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 기업가, 공무원, 전문가, 주민 대표, 연구원 등을 의미
- **P(Program 또는 Project)** : 주체간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한 기반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선도사업

☞ Program이 Actor간 네트워킹 System 위에서 기획되어야 함을 의미

<그림 7> ASP모델의 초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SAP 모델

체적으로 Actor 육성에는 어떤 종류의 세부사업이 가능하고 System 형성에는 어떤 종류의 세부사업이 가능하며 Project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술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시군들은 이 모델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었다.

SAP에서 ASP로의 변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기대했던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이 지지부진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전통적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순서에 입각한 추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ASP모델 설명 자료가 더 이상 균형위 자료 실에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자체 수립하도록 한 지침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대부분의 新활력지역은 자체적인 기획 역량이 워낙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TF Team과 자체 인원만으로 다른 계획도 아닌 新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상기한 ASP모델 중심의 사업계획수립지침이 계획 수정단계에 내려오고 나서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사업계획수립을 마칠 수 있었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요구사항이 나가고 나서 용역발주 여부를 사후에 물어본 것은 해프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표 25> SAP 모델을 통한 新활력사업 기획방향

<p>□ SAP 모델을 통한 新활력사업 기획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활력사업의 목적은 “당장 잡아먹을 물고기”를 얻자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게 하자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구체적인 개별사업보다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하부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 ※ 예) 작품을 쓰려고 하기 전에 내적인 축적을 충실히 해야 좋은 작품을 오래 쓰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혁신주체에 대한 교육과 상호학습을 통해 벤처마킹·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주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의식 변화, 지식과 기술·정보수준의 향상을 유도하여 혁신역량을 갖춘 창조적 지도자(Creative Innovator)로 육성 -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주체 상호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집단적 학습과 혁신(Collective learning & Innovation)을 유도 ※ 한국인들은 사적 네트워크(Personal N/W) 구축에는 강하나 공적 네트워크(Public N/W) 구축에는 취약한 것이 현실 ○ 구체적인 개별 사업은 이러한 혁신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혁신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or를 위한 브레인웨어 사업(교육·연수·능력발전 등), System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포럼·조직구성, 공동연구 등)을 반드시 사업계획에 포함
--

사업계획심사 단계를 돌아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던진 공교육 영역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의 말 한 마디에 공교육과의 연계사업을 구상했던 여러 지역의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던 일이다. 新활력지역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공교육담당자들에게 이를 맡기고 손 놓을 수 없어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구상하던 新활력 지자체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다.

공교육이 부실한 이유를 되짚어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공교육 보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안교육에 적합할 정도로 학생수가 줄어든 新활력 지자체로서는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며 新활력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의 지속성이 끊어진 순간이기도 하다.

2.2 평가지표 분석

제1기 新활력사업에 있어서 평가는 중기계획평가, 1차년도 실적평가, 2차년도 실적평가, 그리고 1기 사업실적 평가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평가 주안점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사업계획 평가 항목

2005. 4. 25일 확정된 평가항목은 新활력사업계획 평가표에 나와 있듯이 크게 사업추진체계, 대상사업의 적정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사업계획 평가항목(예시)³⁾의 순서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표 26> 新활력사업계획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① 대상사업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활력사업 개념에 적합한 사업의 선정 여부 ○ 사업의 창의성 정도 ○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여부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대상사업 수의 최소화 정도 ○ 연접 사군 사업과의 연계성
②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제시의 현실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정도 ○ 중기계획과 연차별계획과의 연계성 ○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 방식과의 차별성(중복) 여부 ○ 재원투자 계획의 적정성
③ 사업 추진의지 및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의지 ○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여부 및 참여 정도 ○ 간담화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 주민의사 수렴 여부 ○ 추진준비 태세 정도(T/F 구성 여부, 자체 워크숍 개최 횟수 등) ○ 민간자본 등 추가재원 확보 투자 정도 ○ 전문가 풀 및 자문위원회 활용 정도
④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파급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세입 증대 등) ○ 지역 홍보효과 정도

다시, 각 평가항목은 세부항목으로 나뉘고 세부항목은 몇 가지 세부 평가 기준에 맞추어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 표는 회의 자료에서 제시된 사업계획 평가 세부항목(안)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표는 그 다음 新활력사업계획 평가표이다.

3) 2005. 2.18 新활력사업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사업계획 평가 세부항목(안)

<표 27> 新활력사업계획 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사업 추진체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지역혁신 성향(역량) ■ 위원의 지역대표성 및 단체장에 대한 독립성 ■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 ■ 지역혁신협의회의 실질적 토의 및 심의여부
	사업별 RIS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리더 구성의 적정성 ■ 개방형 지역혁신체계 구성 ■ 혁신리더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 네트워크의 적절성
	지자체의 업무추진 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T/F 구성 여부 ■ 자체 워크샵, 토론회, 상호학습, 교육 등 ■ 전문가 컨설팅 및 활용정도
혁신 역량강화	창조적 혁신리더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협의회 및 연구회 활동 지원 ■ 주민 및 지역혁신리더교육, 상호학습, 토론회 등 ■ 지자체 기획능력 향상 교육, 벤치마킹 등
	주민의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개최여부·횟수 ■ 지방의회 심의
	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컨설팅 등 활용정도
대상사업의 적절성	지역특성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지역비전 설정의 적절성 ■ SWOT 분석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 ■ 후보 사업군과 비교한 대상사업의 비교우위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창의성
	新활력지역 발전구상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사업 중심(도농교류, 5도2촌, 유통, 홍보, 향토자원, 관광, 장소마케팅, 지리적표시제, 신기술 육성 등)
계획의 충실성	구체성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제시의 현실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연계성 ■ 선택과 집중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 연접 시군 사업과의 연계성
투자계획	투자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물량 대비 예산액의 적정성 ■ 기존 유사사업 투자계획과의 중복성 여부
	민자 및 자체재원 투자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참여 여부 ■ 자체재원과 新활력예산과의 연계성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지역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 유발 ■ 일자리 창출 ■ 소득증대 ■ 세입증대 효과
	지역홍보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유치효과 ■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 가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소 계		30	
	⑦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 사업목표 제시의 현실성	6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6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3	
	⑧재원 투자 계획 의 적정성 및 추가재원 확보 (10점)	- 사업물량 대비 예산액의 적정성	5	
		- 기존 유사사업 투자계획(국고보조사업 등)과의 중복성 여부	3	
		- 新활력사업비(국비)외 지방비·민자 등 추가재원 확보 정도	2	
	⑨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5점)	- 연접 시·군 사업과의 연계성	3	
		-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2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	소 계		10	
	⑩지역경제 파급효과 (7점)	- 인구증가 유발, 일자리 창출, 소득세입 효과 정도	3	
		- 사업효과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정도	4	
	⑪지역 홍보 효과(3점)	-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 정도	3	
총 합 평가의견				

2005. 4. 25

평 가 자 : _____

‘05 실적평가

1차년도 실적평가의 특징은 균형위와 사업주관부처인 행자부가 공동으로 현지평가 실시 후 자문위원회 공동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점이다. 그 이유는 “新활력사업 자문위원의 평가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민간자문위원(28명) 중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FD(22명) 위촉위원을 제외하면 가용자원(6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다수 평가참여 불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년도 현지평가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현지평가는 11월14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10일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년도 실적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계획이 4월30일 확정되었는데 10월31일까지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실제로 중앙에서 자금이 넘어온 것은 7월 이후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新활력사업의 추진목표인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항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 대신 사업추진실적(25점),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40점)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新활력사업의 근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항목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은 크게 1. 사업추진태세, 2. 사업추진실적, 3.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4. FD운영실태, 5. 업무협조 및 우수사례 발표로 나뉜다.

<표 29> 1차년도 사업실적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 사업추진태세	1.1 전담조직의 신설 및 인력보강	7	15
	1.2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운영	3	
	1.3 단체장(부단체장)의 관심도 및 추진의지	5	
2. 사업추진실적	2.1 사업내용의 적정성	10	25
	2.2 세부단위사업 실행계획	10	
	2.3 기본계획 변경	2.5	
	2.4 사업 홍보	2.5	
3.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3.1 예산편성	10	40
	3.2 예산집행	30	
4. FD운영실태	4.1 FD위촉	2	10
	4.2 FD계약	2	
	4.3 FD활동	6	
5. 업무협조 및 우수사례 발표	5.1 시도 활동	2	10
	5.2 중앙과의 협조	5	
	5.3 우수사례 발표	3	

‘06 평가

'06년 계획평가가 '06. 3.14~3.15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다. '06계획평가의 특징은 '05년 실적평가가 부진한 22개 시군들에 대하여는 '06년 사업계획은 물론 자체개선계획을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06년 사업계획서와 '05년 사업추진 부진지역 중 일부는 결국 '06년 계획수립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여러 시군이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당하였다. '06실적평가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2006 新활력사업 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의견 및 확인사항
1. 사업추진 태세	1-1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보강	
	1-2 단체장(부단체장) 관심도	
2. 사업추진 실적	2-1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2-2 지역혁신체계 구축	
	2-3 세부단위사업 집행	
3. 사업 성과 및 효과	3-1 지역발전효과	
	3-2 사업의 성공 가능성·지속성	
4. 홍보실적	4-1 사업 홍보	
5. 수범사례 및 시·도 활동	5-1 우수사례 발표	
	5-2 시·도 활동	
6. 가점(+5이내)		
7. 감점(-10이내)		

3. 성과 분석

3.1 지원목표와의 정합성

新활력사업의 지원목표는 “新활력사업 추진지침”에 나와 있다시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발전역량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혁신체계를 재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개인적 차원의 혁신리더는 각종 사례집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제법 많이 발굴할 수 있지만 시장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뢰와 협력으로 뭉쳐 국내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新활력사업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이러한 현실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기 新활력사업 성과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하에 이와 같은 **지원목표**를 단계별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간 연계협력**이다. 지역 간 연계협력은 지역별 특성화를 이룬 후에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지역별 특성화를 추구하고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 지역간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지역별 특성화, 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주체를 선정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국가균형발전 산업정책 중 시도별 4대 전략산업 선정이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IT, BT일색이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향토자원(농·특산물)개발을 주제로 한 지역이 50여 시군에 이르지만, 농·특산물이 아닌 타 지역과 차별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주제 선정이 여러 시군에서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新활력사업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곡성, 거창, 합천, 창녕)은 곡성이나 거창의 경우 상당한 가시적 성과(인구유출방지, 사교육비 경감)를 거두었으며 지역 문화·관광을 주제로 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였으나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는 경우 관광객 유입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영월(박물관), 인제(모험레포츠), 영동(국악), 장성(홍길동 문화콘텐츠), 신안(갯벌체험관광) 등은 농·특산물 이외의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2 혁신역량강화 사업

新활력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서 의식개혁을 수반하는 지역의 혁신리더 발굴과 육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일회성 행사 성격의 강의교육을 탈피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약하여 실질적인 교육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05년의 경우 1회성 행사에 치중하던 지역들이 많았으나 '06년 실적을 분석해 보면 1회성 행사에 치중하는 지역이 소수에 이를 정도로 체계적인 리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시군이 늘어가고 있는 점을 예산 집행내역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혁신역량강화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관, 민,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혁신 포럼의 형태나 생산과 유통에서의 조합법인 결성 뿐 아니라 인근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의 단계를 넘어서 지자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 혁신리더교육 실시 현황

연중 최소한 5회 이상의 체계적인 혁신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을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0> 혁신리더교육 실시 현황

권역	시군	내역(기간 : 교육기관)
중부권	강화군	○ 정보화혁신역량강화('05-'06 : 안양대) ○ 지역혁신협의회위탁교육('05 : 유답, '06 : 한국능률협회)
	양양군	○ 밀레니엄양양아카데미('05-'07 : 인간개발연구원) ⁴⁾ ○ 양양농어촌관광대학('06-'07 : 지역활성화센터)
	인제군	○ 마을리더교육('05-'07 : 한림대) ○ 마을리더교육이수자 대상 심화교육('07 : 한림대) ○ 주민역량강화교육('07 : 한림대) ○ 행정혁신교육('05 : 능률협회, '07 : 유답)
	평창군	○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05-'07 : 지역활성화센터)
	화천군	○ 지역혁신역량강화('05-'06 :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횡성군	○ 횡성인재육성학교('05-'07 : 송호대학)
	괴산군	○ 찾아가는 교육('06-'07) ⁵⁾
	영동군	○ 감고을 아카데미('05-'06 : 영동대학교)
	금산군	○ 금산 CGB 농촌관광대학('05-'06) ⁶⁾ ○ 금산 혁신 아카데미('05 : 한국생산성본부) ○ 금산인삼산업CEO스쿨('06 : 한국벤처농업포럼)

권역	시군	내역(기간 : 교육기관)
호남권	고창군	○ 농촌개발대학('06)7)
	고흥군	○ 고흥성공아카데미8)
	부안군	○ 부안뽕 CEO 아카데미('06 : 원광대)9)
	강진군	○ 녹색문화 체험대학('05-'07 : 군청)10)
	나주시	○ 지역혁신리더아카데미 '나주세움'('06-'07 : 전남대학교)
	담양군	○ 21C 담양포럼('06-'07 : 군청)11)
	무안군	○ 농어촌 지도자대학('06-'07 : 목포대학교)12)
	보성군	○ 보성자치포럼('05-'07 : 군청)13)
	영암군	○ 氣 과학교육('06-'07 : (사)미래산업기술연구원) ○ 氣 교양강좌('06-'07 : (사)미래산업기술연구원) ○ 영암기공 교육('06-'07 : (사)미래산업기술연구원) ○ 21영암 포럼('05-'07)14)
	장성군	○ 장성아카데미('05-'07 : 한국인간개발연구원)15)
영남권	봉화군	○ 파인토피아 봉화 아카데미('05-'06)
	상주시	○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05-'07 : 상주대학교)
	영덕군	○ 영덕자치대학('05-'07)
	영양군	○ 해달아카데미('05-'07 :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의성군	○ 지역혁신리더양성 교육('05 : 한국산업개발원)16)
	청도군	○ 청도반시 아카데미('05-'07)17)
	하동군	○ 지역혁신리더 역량강화교육('05-07' : 백상경제연구원)
	함양군	○ 주민자치대학('05-'07 : 한국인간개발연구원)18)

4) '05년 집행기록은 없음.

5) 예산집행 기록없음.

6) 예산 집행기록 없음.

7) 예산 집행기록 없음.

8) 예산 집행기록 없음.

9) 총예산 20,000천원으로 10회 실시

10) 新활력사업비로는 여비 및 일부 강사수당 보상

11) 예산 집행기록 없음.

12) 新활력사업비에서는 여비만 보상

13) 예산 집행기록 없음.

14) 예산 집행기록 없음.

15) 예산 집행기록 없음.

16) 예산 집행규모(16,709천원)으로 미루어 체계적인 리더 교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17) 예산 집행 규모(17,964천원+5,550천원)로 미루어 전형적인 리더 교육은 아닌 것으로 간주됨.

18) '06은 新활력사업 집행기록 없음.

(2) 지역리더발굴 현황

<표 31> 지역리더발굴 현황

권역	시군	내역
중부권	인제군	○ 이정복 : 전국공예대전 대통령상('06) ○ 이원태 : 전국장애인기능대회 금상('06)
	화천군	○ 김두봉 : 친환경농업대상('05) ○ 장석범 : 대통령 표창('06) ○ 한상열 : 석탑산업훈장('06) ○ 박세영 :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06) ○ 홍원문 : 친환경농업대상 장관상('07)
호남권	순창군	○ 강순옥 : 농림부장관상 수상('05, '06) ○ 김용순 : 지역특화사업부문 대통령상 수상('05)
	담양군	○ 정우술 : 국제상하수도 전시회 환경부장관상('05)19)
	보성군	○ 임홍준 : 농림부 신지식농업인('07)
영남권	청도군	○ 하상오 : 국무총리 표창('06) ○ 이종평 : 국무총리 표창('07) ○ 정윤철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06)

(3)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표 32>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권역	시군	내역
중부권	강화군	○ 강화약쑥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8. 7) ○ 강화약쑥 특구 지정('06. 6. 20) ○ 상표등록 38건, 특허등록 5건, 실용신안 등록 1건
	양양군	○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산림청, '06. 3. 27) ○ 액체배양을 이용한 능이버섯의 종균생산방법 특허(산림청, '07. 10)
	괴산군	○ 특허등록 6건
	증평군	○ 상표등록 1건
호남권	고창군	○ 복분자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04) ○ 고창복분자(생과) 지리적 표시 등록('07. 7)
	순창군	○ 순창장류 지리적 표시제 등록(농림부 제8호) ○ 특허등록 3건 등 총 17건 지적재산권 확보
	고흥군	○ 통합브랜드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06) ○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07)
	담양군	○ 대나무 신산업 관련20) - 특허 26건, 의장등록 3건, 상표등록 78건
	진도군	○ 진도홍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07) ○ 진도홍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07)
영남권	봉화군	○ 봉화송이 지리적표시제 등록('05.)
	상주시	○ 상주곶감특구 지정('05. 9. 6)
	성주군	○ 성주참외(참별미소) 상표 등록('06. 11. 14) ○ 성주참외 지리적 표시제 등록('05. 12. 1)
	울릉군	○ 특산물(부지갱이, 미역취, 참고비, 삼나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06. 12.15)
	의성군	○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등록('05. 7. 20) ○ 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 지정('06. 6.20) ○ 구워먹는 토종의성마늘 특허청 상표 등록
	산청군	○ 덕산곶감 지리적 표시등록('06. 6. 9) ○ 산엔청 공동브랜드 등록('07. 5. 4) ○ 특허등록 : 3건(한방차, 약초환, 아토피치료)

19) 축초액 약취 제거 시스템 개발, 예산집행기록으로부터 인정 가능

20) 전체 지적재산권 중 어느 만큼이 新활력사업 성과인지 판단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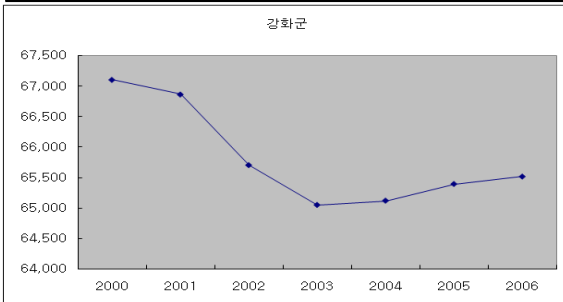
3.3 가시적 성과의 도출

낙후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소득기반의 상실이다.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新활력사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도서지역의 경우 도서료 할인에 따른 주소 이전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숨은 인구 찾기가 新활력사업 추진 이후 활발해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숨은 인구 찾기에 무심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비로소 지역의 숨은 자원 발굴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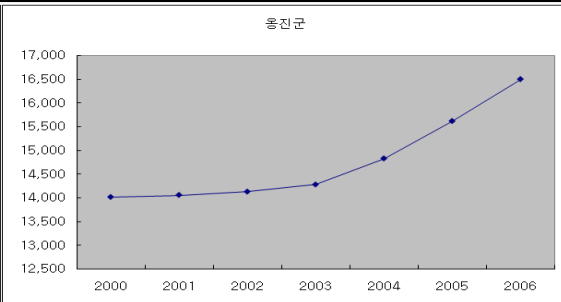
(1) 新활력사업 기간 중 인구증가가 있었던 지역

<표 33>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인구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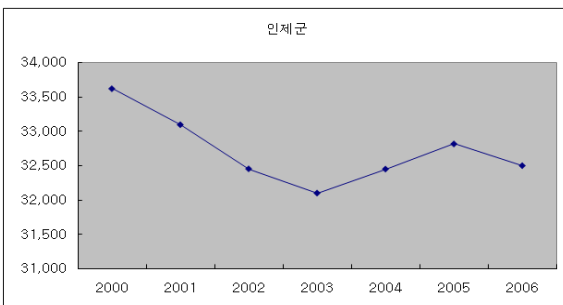
권역	시군명	'00	'01	'02	'03	'04	'05	'06
중부권	강화군	67,100	66,860	65,698	65,044	65,114	65,389	65,510
	용진군	14,008	14,050	14,120	14,270	14,820	15,609	16,491
	인제군	33,618	33,092	32,447	32,092	32,443	32,811	32,493
호남권	순창군	34,587	33,892	32,329	31,482	31,814	32,012	32,485
	신안군	53,150	51,342	49,704	50,726	47,591	46,451	46,714
영남권	고령군	37,587	36,796	35,978	34,942	34,522	34,272	34,797
	영덕군	51,131	49,593	52,602	46,965	45,826	45,003	46,460
	울릉군	10,241	9,944	9,615	9,245	9,201	9,550	10,254
	남해군	61,255	59,599	57,649	60,160	57,909	58,162	55,104
	의령군	33,494	32,751	32,766	32,371	32,371	31,099	3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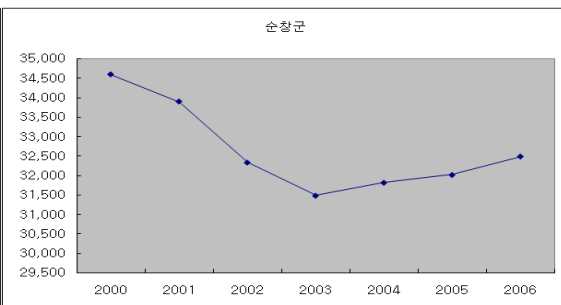
<그림 8-1>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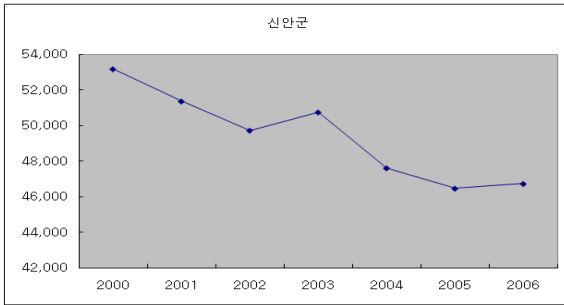
<그림 8-2>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용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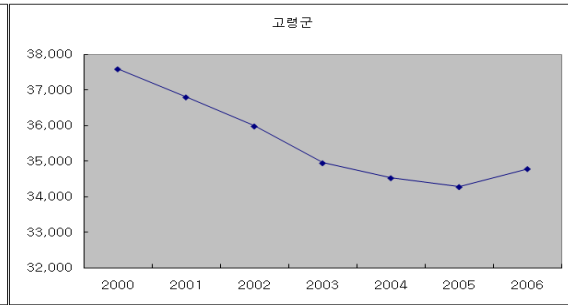
<그림 8-3>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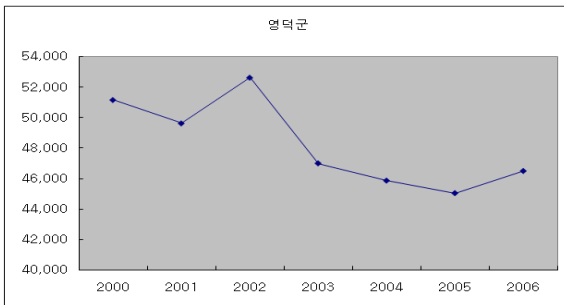
<그림 8-4>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순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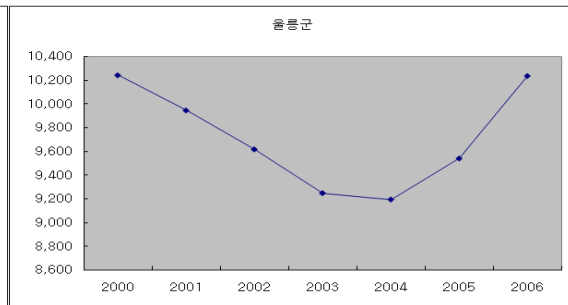
<그림 8-5>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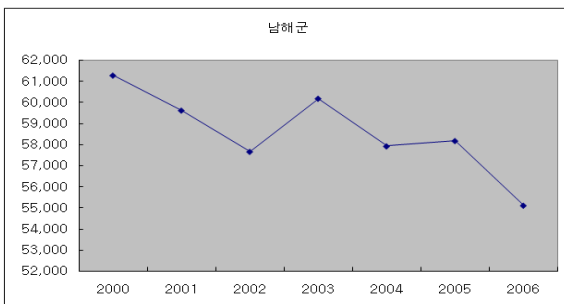
<그림 8-6>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고령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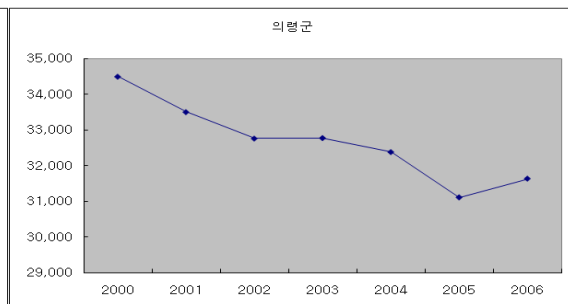
<그림 8-7>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영덕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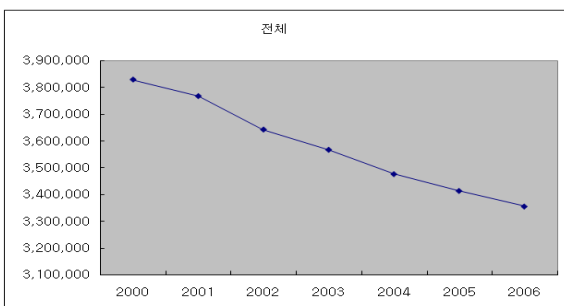
<그림 8-8>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울릉군



<그림 8-9>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남해군



<그림 8-10>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의령군



<그림 8-11> 新활력기간중 인구증가현황-전체

(2) 소득

<표 34>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소득증가 현황

권역	시군명	'04	'05	'06
중부권	횡성군		○ 한우사육 - 사육가구 : 1,897 - 사육두수 : 24,885두 - 소득 : 163억	○ 한우사육 - 사육가구 : 1,972 - 사육두수 : 29,840 - 소득 : 190억
	영동군	○ 포도 생산소득 - 830억	○ 포도 생산소득 - 874억	○ 포도 생산소득 - 1,007억
	금산군	○ 갯잎 조수입 - 202억	○ 갯잎 조수입 - 221억	○ 갯잎 조수입 - 252억
	청양군	○ 고추 - 280억	○ 고추 - 300억	○ 고추 - 400억
호남권	고흥군	○ 유자 등 생산 소득 - 44억9천만	○ 유자 등 생산 소득 - 84억3천만	○ 유자 등 생산 소득 - 132억8천만
	담양군	○ 대나무 신산업 관련 군민 소득 - 12억	○ 대나무 신산업 관련 군민 소득 - 18억	○ 대나무 신산업 관련 군민 소득 - 20억
	진도군	○ 홍주제조 쌀 판매소득 - 11억 ○ 홍돈 판매소득 - 17억 ○ 홍우 판매소득 - 126억	○ 홍주제조 쌀 판매소득 - 13억 ○ 홍돈 판매소득 - 20억 ○ 홍우 판매소득 - 141억	○ 홍주제조 쌀 판매소득 - 15억 ○ 홍돈 판매소득 - 23억 ○ 홍우 판매소득 - 169억
영남권	문경군	○ 오미자 관련 조수입 - 25억	○ 오미자 관련 조수입 - 40억	○ 오미자 관련 조수입 - 80억
	울릉군		○ 지역관광수입 - 296억9천4백만 ○ 지역특산품수입 - 152억3천7백만	○ 지역관광수입 - 321억1천2백만 ○ 지역특산품수입 - 181억6천9백만
	의성군	○ 마늘관련 소득 - 518억		○ 마늘관련 소득 - 1,496억
	하동군		○ 녹차관련 소득 - 622억2백만	○ 녹차관련 소득 - 674억6천4백만

※ 의성군은 시행전과 시행후로 표기되어 있었음.

(3) 매출

<표 35>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매출증가 현황

권역	시군명	'04	'05	'06
중부권	양양군	○ 송이 - 판매 : 5억66백만 - 가공 : 46억38백만	○ 송이 - 판매 : 7억41백만 - 가공 : 50억52백만	○ 송이 - 판매 : 7억61백만 - 가공 : 62억62백만
	인제군	○ 황태판매액 - 200억	○ 황태판매액 - 240억	○ 황태판매액 - 300억
	영동군	○ 포도 - 가공품 : ○ (주)와인코리아 - 매출 : 22억	○ 포도 - 가공품 : 34억 ○ (주)와인코리아 - 매출 : 25억	○ 포도 - 가공품 : 40억 ○ (주)와인코리아 - 매출 : 43억
	부여군		○ 굿뜨래 경영수익 - 420억 ○ 굿뜨래 공동마케팅 - 84억	○ 굿뜨래 경영수익 - 677억 ○ 굿뜨래 공동마케팅 - 99억
호남권	고창군	○ 복분자 관련 - 205억	○ 복분자 관련 - 296억	○ 복분자 관련 - 375억
	순창군	○ 장류관련매출 - 2,210억	○ 장류관련매출 - 2,420억	○ 장류관련매출 - 2,700억
	임실군	○ 임실치즈농협 - 104억 ○ (주)숯골유가공 - 11억 ○ 임실치즈피자 - 120억	○ 임실치즈농협 - 101억 ○ (주)숯골유가공 - 19억 ○ 임실치즈피자 - 192억	○ 임실치즈농협 - 123억 ○ (주)숯골유가공 - 32억 ○ 임실치즈피자 - 384억
	장진군	○ 잡곡 관련 매출 - 64억원	○ 잡곡 관련 매출 - 74억2천만	○ 잡곡 관련 매출 - 104억6천만
	담양군	○ 대나무 신산업 관련 - 210억 ○ 죽초액 응용상품 - 90백만 ○ 로열티 수입 - 1억원	○ 대나무 신산업 관련 - 223억 ○ 죽초액 응용상품 - 1억61백만 ○ 로열티 수입 - 34백만	○ 대나무 신산업 관련 - 236억 ○ 죽초액 응용상품 - 6억43백만 ○ 로열티 수입 - 42백만
	진도군	○ 홍주 매출 - 80억	○ 홍주 매출 - 100억	○ 홍주 매출 - 130억
	고흥군	○ 유자 등 관련 매출 - 185억6천만	○ 유자 등 관련 매출 - 226억5천만	○ 유자 등 관련 매출 - 265억6천만
	무안군	○ 백련 관련 매출 - 3억	○ 백련 관련 매출 - 19억	○ 백련 관련 매출 - 42억
함평군	○ 나비 관련 매출 - 5억97백만	○ 나비 관련 매출 - 7억5천만	○ 나비 관련 매출 - 15억25백만원	
영남권	문경군	○ 오미자 가공 - 1억원	○ 오미자 가공 - 1억2천만	○ 오미자 가공 - 75억
	성주군	○ 성주참외 - 23억92백만	○ 성주참외 - 21억91백만	○ 성주참외 - 24억81백만
	청도군	○ 청도반시 - 232억21백만	○ 청도반시 - 322억96백만	○ 청도반시 - 383억32백만
	남해군	○ 화전한우 - 35억	○ 화전한우 - 51억	○ 화전한우 - 86억
	산청군	○ 약초관련매출 - 50억	○ 약초관련매출 - 80억	○ 약초관련매출 - 100억

(4) 고용창출

<표 36> 新활력사업 기간 중 지역별 고용창출 현황

권역	시군명	'04	'05	'06
중부권	양양군	○ 송이 - 가공 : 83명 - 판매 : 112명	○ 송이 - 가공 : 94명 - 판매 : 134명	○ 송이 - 가공 : 96명 - 판매 : 142명
호남권	고흥군	○ 유자 등 관련산업 - 3,992명	○ 유자 등 관련산업 - 4,323명	○ 유자 등 관련산업 - 4,934명
	순창군	○ 장류산업종사자 - 595명	○ 장류산업종사자 - 630명	○ 장류산업종사자 - 675명
	임실군	○ 임실치즈농협 - 47명 ○ (주)숯골유가공 - 14명 ○ 임실치즈피자 - 196명	○ 임실치즈농협 - 47명 ○ (주)숯골유가공 - 27명 ○ 임실치즈피자 - 312명	○ 임실치즈농협 - 53명 ○ (주)숯골유가공 - 37명 ○ 임실치즈피자 - 640명
	담양군	○ 대나무신산업벤처 - 38명	○ 대나무신산업벤처 - 116명	○ 대나무신산업벤처 - 20명
	무안군	○ 백련 관련 산업 - 10명	○ 백련 관련 산업 - 80명	○ 백련 관련 산업 - 120명
	함평군	○ 연합마케팅참여 - 87명	○ 연합마케팅참여 - 96명	○ 연합마케팅참여 - 109명
	영남권	문경군	○ 오미자 가공 - 8명	○ 오미자 가공 - 11명
	의성군	○ 마늘 관련 - 638명		○ 마늘 관련 - 1,038명

(5) 축제지원 등으로 인한 파급효과

<표 37> 축제지원 등으로 인한 지역별 파급효과

권역	시군명	'04	'05	'06	'07
중부권	양양군	○ 송이축제 - 방문객: - 매출:89억	○ 송이축제 - 방문객: - 매출:97억	○ 송이축제 - 방문객:77만 - 매출:102억	
	인제군	○ 황태축제(6회) - 방문객:15만 - 매출:3억	○ 황태축제(7회) - 방문객:18만 - 매출:4억	○ 황태축제(8회) - 방문객:20만 - 매출:5억	○ 황태축제(9회) - 방문객:25만 - 매출:7억
	화천군	○ 산천어축제(2회) - 58만 5천명	○ 산천어축제 - 87만명	○ 산천어축제 - 103만명	○ 산천어축제 - 125만명
	횡성군		○ 한우축제 - 방문객:29만 - 소득:79억	○ 한우축제 - 방문객:52만 - 소득:118억	
	영동군	○ 국악기제작촌 - 방문객:7천 - 판매:5억1천만	○ 국악기제작촌 - 방문객:8천5백 - 판매:7억4천만	○ 국악기제작촌 - 방문객:2만9천 - 판매:7억1천만	
	금산군	○ 인삼축제 - 방문:19만7천	○ 인삼축제 - 방문:93만5천	○ 인삼축제 - 방문:190만	
	부여군		○ 서동요테마파크 - 방문:22,640 - 수입:3천4백만	○ 서동요테마파크 - 방문:268,338 - 수입:3억5천만	
호남권	순창군			○ 순창장류축제 - 방문:12만 - 수익:12억	
	무안군	○ 백련단지 - 방문:8만 - 입장료:1억	○ 백련단지 - 방문:11만5천 - 입장료:2억	○ 백련단지 - 방문:14만 - 입장료:2억 5천만	
	함평군	○ 함평나비대축제 - 150만	○ 함평나비대축제 - 155만5천	○ 함평나비대축제 - 161만8천	
영남권	봉화군	○ 은어축제 - 방문:16만5천 - 매출:19억 ○ 송이축제 - 방문:19만9천 - 매출:72억	○ 은어축제 - 방문:19만8천 - 매출:22억 ○ 송이축제 - 방문:23만3천 - 매출:100억	○ 은어축제 - 방문:29만6천 - 매출:50억 ○ 송이축제 - 방문:30만5천 - 매출:112억	
	산청군	○ 약초관련관광객 - 60만명	○ 약초관련관광객 - 70만명	○ 약초관련관광객 - 100만명	
	함양군	○ 물레방아축제 - 방문:5만	○ 물레방아축제 - 방문:8만5천	○ 물레방아축제 - 방문:10만	

(6) 향토기업육성 및 외부기업유치

<표 38> 지역별 향토기업육성 및 외부기업 유치 현황

권역	시군	내역
중부권	강화군	○ 기업 유치 - (주)이룸, (주)닥터코리아
	양구군	○ 향토기업 - 통일고랭지채소영농조합법인
	괴산군	○ 기업유치 - (주)넥스젠,
	증평군	○ 기업유치 - 농협고려인삼, (주)에프앤피
호남권	순창군	○ 장류제조업체수 - 67개('04), 72개('05), 75개('06)
	고흥군	○ 향토기업 육성 - 1개소('04), 2개소('05), 9개소('06)
	나주시	○ (주)세노코 - 배꽃압화 관광상품 등 40여종 개발('05) - 지적재산권 1건 등록('06) - 나주배 향토삼푸 등 25종 개발('06)
	장성군	○ 투자유치 - 25건('04), 38건('05), 44건('06)
	진도군	○ 명품홍주 유통회사 설립(군민 주주제)

(7) 글로벌 시장 진출

<표 39> 지역별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

권역	시군명	내역
중부권	금산군	○ 인삼 - 중국절강성 430만불 수출계약('06) ○ 깻잎 - 미국, 일본, 캐나다 20,280불 수출 :('06)
	부여군	○ 곱뜨래 해외수출액 - 204억('05)→212억('06)
호남권	진도군	○ 진도홍주 해외수출 - 미국 LA Solid Gold사와 협약('06)
	함평군	○ 해외 우수사례 발표 - 호주 지방정부 연차대회 초청('06)
영남권	봉화군	○ 송이김치 수출 - 일본, 싱가포르 등 1,300만불('05)
	성주군	○ 참외 - 일본(한인유통) 매주 5kg, 1000박스 수출 계약('06) - 일본인 유통업체 매주 5kg, 300박스 수출 계약('06) - 일본대형슈퍼(동경)마켓 12개소 판매('06)
	청도군	○ 감말랭이 - 일본, 미국, 캐나다 15톤 22만불 수출('05) ○ 반건시 - 미국 5톤 5만불 수출('05) ○ 감와인 - 미국 100억원 수출 5년간 계약('05) ○ 감말랭이 - 일본, 미국, 캐나다 5톤 7만불 수출('06) ○ 반건시 - 미국 2톤 2만불 수출('06)

3.4 시군별 우수사례

(1) 지역혁신역량강화 중점 유형

인제군 :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

o 개요

인제군은 휴전선 12.7km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주민보다 영내거주 군인들의 수요가 더 많으며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법규의 중복 규제로 개발가능면적이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체험을 중시하는 현대 관광의 조류에 부응하여 많은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모험레포츠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전후방 지원 산업과 연계 하되 新활력사업의 취지에 따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혁신리더교육과 분야별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o 추진체계

인제군은 新활력사업 정책관리전략 중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ASP모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Actor 육성사업은 마을리더교육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40명이내의 소수 인원을 선발하고 연중 매월 1박2일 이상의 합숙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자아진단으로부터 시작하는 리더십 훈련, 팀워크 형성훈련, 현장학습 등에 역점을 두어 교육생, 교육지원팀, 군청의 혁신분권 담당이 신뢰와 협력으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교육생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료식에서 우수계획을 선정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System형성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 구성은 주민과 외부전문가, 관이 골고루 참여하여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의 골격을 이루고 연구·개발, 포럼활동, 시범사업 운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마을리더교육의 후속사업으로 1-2기 수료생 대상의 심화학습 사업과 마을단위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07년부터 추진 중이다.

인제군지역혁신협의회는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협력단은 자문·컨설팅 기능을 수행한다.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 담당이 新활력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구회는 군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여 자금 집행을 관리하고 있다.

○ 주요성과

인제군의 마을리더교육은 혁신리더교육의 모범사례로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기 27명, 2기 39명 등 총 76명을 배출하였고, 제3기 45명을 현재 교육 중이다. 교육성과로는 매 기별로 우수마을발전계획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한 것과 '06년도의 극심한 수해극복에 마을리더교육생들이 앞장선 것을 들 수 있다. **마을리더교육은 1-2기 수료생 대상의 통합 심화교육과 마을단위의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나 **마을공동체복원**을 추진 중이다.

분야별 연구회의 대표적 성과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역혁신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주도형 지역혁신체계는 모험레포츠, 황태, 목공예, 산림자원연구회가 구축하고, NGO주도형 지역혁신체계는 향토어족, 사슴생태복원 연구회가, 마을단위 지역혁신체계는 마을혁신연구회가 구축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우선 목공예연구회의 단기집중심화학습이 이룬 기량향상을 들 수 있다. 新활력사업의 소프트한 성격과 가장 부합하는 세부사업으로서 3개월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중적으로 기량을 연마한 결과 전국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수해에 떠내려간 연구시설과 대비되어 교육으로 일군 성과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사례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국제학술대회('07, 5. 15),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의 국제세미나('07, 9.)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이밖에 모험레포츠 연구회의 월드래프팅 대회 개최, 황태연구회의 지리적 표시제 추진, 향토어족연구회의 열목어 양식 성공, 산림자원연구회의 돌배주 개발, 마을혁신연구회의 1사1촌 체결 사례도 단기간에 이룬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역량으로 사업 추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집행실태

철저하게 SW사업 위주로 집행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다. 특히, 혁신리더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연구회 운영 또한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하에 집행하고 있다.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4,295	3,635	528	132	3,365	3,065	300	0	78.3
'06	3,431	3,000	431	0	3,431	3,000	431	0	100.0
'05이월	985	625	228	132	985	625	228	132	100.0

<표 40-1> 인제군-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 집행실태

○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300	300	600	0	600

<표 40-2> 인제군-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사업 인센티브

(2)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창출 중점 유형

산청군 :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

o 개요

산청군은 지리산 청정지역으로 군 면적의 79%가 임야로 되어있다. 류의태, 허준 선생이 활동한 바 있는 전통한방의 본 고장으로 국내 최대의 효능 높은 자생약초를 생산한다.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新활력사업 추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83.3%가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희망하였다.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지리산약초 연구개발, 우량약초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한방약초 체험기반 구축 및 민자유치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o 추진체계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육성 사업에서 지역협력단, 특별자문단, 관학협력 체결대학, 생약기능성식품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연구·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산청농협, 산림조합, 약초조합 등 농업지원기관이 자금지원·유통망 확보를 담당하며, 약초재배농가, 초종별 작목반, 약초연구회 등 약초 생산농가가 한약재 생산·1차 가공을 담당한다. 공동탕제원, (주)기화제약, 생약기능성식품업체 등 관련기업은 상품 생산·판매를 담당하고, 지역언론사, 약초축제위원회, 농업경영인회 등 언론·사회단체는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며, 산청군은 교육·묘목보급을 담당한다.

o 주요성과

지속적인 약초재배 기반조성과 민간자본 투자유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로 확장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약초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약초재배 실태조사 결과 '04년 579호 500ha 500톤에서 '05년 985호 700ha 1,000톤, '06년에는 1,200호 1,000ha 1,200톤, '07년에는 1,500호 1,200ha 1,500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산청 지리산 한방약초 축제와 한의학박물관 등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결과 연계된 외래 관광객이 '04년 60만명, '05년 70만명, '06년 1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약초 관련 매출액 또한 '04년 50억원, '05년 80억원, '06년 1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마산대학교에 약재개발학과를 설치('05. 2. 25)하고 관내 산청고등학교에

한약자원과를 설치('05. 11. 3)한 것은 한방약초 관련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성과이다.

○ 집행실태

'05년도에는 우선 한방산업단지부지조성 편입보상비(3억 33백만원)와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부지매입비(2억 24백만원)로 新활력사업비를 집행한 점이 눈에 띈다. '06년부터는 편입보상금을 지방비로 지급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화계시장 특산품판매장 설치사업 편입보상, 덕산시장 약초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사업 편입보상, 산청시장진입도로 약초시장 개설공사 편입보상 등에 다시 新활력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약초재배선도농가가공공장 지원, 한방약초가공산업시설 지원 등을 보조사업 형태로 집행하였다.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6,154	3,235	2,195	724	5,742	2,823	2,195	724	93.3
'06	28,717	3,400	10,082	15,235	28,685	3,368	10,082	15,235	99.9
'05이월	2,225	1,679	0	546	2,225	1,679	0	546	100.0

<표 41-1> 산청군-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집행실태

○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300	400	700	900	1,600

<표 41-2> 산청군-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인센티브

하동군 :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 개요

하동은 신라 흥덕왕 3년(824년)에 대렴공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와 왕명으로 화개동에 처음 심은 차 시배지이면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가 있는 녹차의 성지이다. 하동녹차 재배지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수확시기에 밤, 낮의 기온차가 크고 안개가 많아 차 맛을 좋게 하는 최상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동녹차 산업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06년에는 1,917호에서 853ha를 재배, 연간 503hs을 생산하고 있다. 하동군의 녹차재배면적은 전국대비 23%이고 농가수도 전국대비 39.4%를 차지한다.

新활력사업으로 지역혁신리더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하동녹차 전략적 홍보·마케팅, 하동녹차 볼거리 체험하기 프로그램 상시 운영,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및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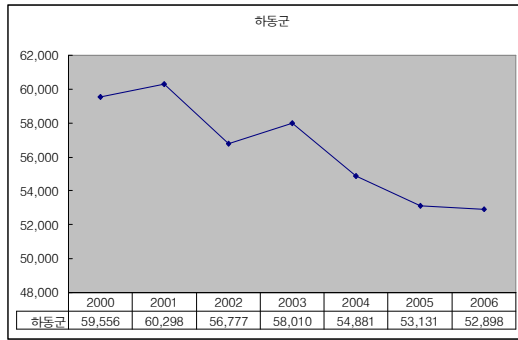
하동군은 新활력사업의 총괄 기획,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굴을 담당하고, 하동녹차연구소는 하동녹차 기능성 연구,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하동녹차 클론보존원 조성, 다양한 학술연구 및 포럼 이노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녹차발전협의회(하동녹차영농조합법인)는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 운영, 농민 현장 기술 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강구, 하동녹차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에 참여하고, 지역주민(제다, 농가)은 新활력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혁신리더교육이나 하동녹차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녹차 관련 기술을 교육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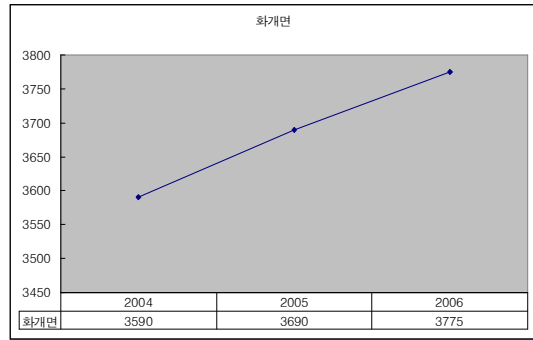
하동군지역혁신분권위원회는 新활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혁신리더교육에 참여하며, 성공적 新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에도 참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성과

하동군 전체 인구는 매년 9%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화개면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였다. 하동녹차 재배면적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新활력사업 관련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 신설되면서 고용증대의 성과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림 9-1> 하동군 인구 변화



<그림 9-1> 화개면 인구 변화

<표 42-1>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성과(고용증대)

구분	생산량 (톤)	1인/일 채업량(kg)	연간투입인원 (명)	규격	단가 (천원)	총 인건비 (백만원)	
'05	고급차	287	5	57,400	여	40	2,296
	티백	2,107	750	2,809	남	70	197
	계	2,394		60,209			2,408
'06	고급차	355	5	70,937	여	40	2,837
	티백	2,399	750	3,119	남	70	224
	계	2,754		74,136			2,965
'07	고급차	417	5	83,328	여	40	3,333
	티백	2,187	750	2,916	남	70	204
	계	2,604		86,244			3,537

뿐만 아니라 소득도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2>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성과(소득증대)

연도	합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관련산업소득	고용소득
'05	62,202	21,405	23,889	14,500	2,408
'06	67,464	22,492	27,507	14,500	2,965
'07	70,995	25,084	27,874	14,500	3,537

o 집행실태

<표 42-3>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4,321	3,135	0	1,186	3,664	2,708	0	956	84.8
'06	4,520	2,900	850	770	3,190	1,770	850	570	70.6
'05이월	2,891	2,081	0	810	2,873	2,070	0	803	99.4

o 인센티브

<표 42-4> 하동군-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500	600	1,100	900	2,000

청양군 : 파워 7갑 특화사업

o 개요

청양군은 충남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발전계획과 충청남도의 각종 발전계획에서 소외되고 산업 및 서비스시설이 빈약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 급격하게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7%)로 진입하였다.

新활력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산간분지로 일교차가 커서 고추의 개화 결실이 양호하며 맛과 빛깔이 좋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강점을 살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 6차 산업을 융합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주~서천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 확·포장 공사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시기에 도·농간 활발한 교류 협력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o 추진체계

파워7갑 新활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RIS구축사업과 청양고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은 고추연구회, 12개 고추작목반, 청양고추랜드, 도농교류센터가 참여하고, 학은 공주대, 순천향대, 청양대 등이 참여하며, 연구기관으로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인간개발연구원, 한국식품연구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참여하며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맡는다.

o 주요성과

청양고추 재배면적이 05년도 960ha에서 1006ha로, 소득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06년도에 명품청양고추 소비자 5천명의 고객 정보 DB를 구축하고 104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핵심리더로 청양고추대학에서 40명을 배출하고, 벤처농업인 10명을 육성하였고, 우수사례로 명품청양고추 6차별화(무제초제, 세척, 양건건조, 공동선별, 품질보증, 리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당 3천원의 추가소득을 얻게 되었다. '

o 집행실태

체계적인 혁신리더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양고추대학의 경우 '07년도에 이르러 6회 실시하였다고 하나 운영 시간이 총 18시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혁신리더교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나마 집행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다. 청양아카데미(한국인간개발연구원 위탁)의 경우 '05년 집행 기록은 있으나 실적보고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반면에 고추시설하우스 설치, 고추재배부직포지원 사업, 고추가공현대화사업 등의 농가직접보조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43-1> 청양군-파어 7갑 특화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255	3,735	920	600	4,407	2,887	920	600	83.9
'06	6,339	3,900	257	2,182	2,458	1,379	0	1,079	38.8
'05이월	734	734	0	0	0	0	0	0	0.0

o 인센티브

<표 43-2> 청양군-파워 7갑 특화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300	400	700	900	1,600

고창군 : 복분자 클러스터산업 종합발전사업

○ 개요

고창군 복분자클러스터 산업 종합발전사업은 “복분자산업특구”의 지정('06. 6. 20)으로 전국적인 지역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 있어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복분자 육종 및 재배기술 개발, 생산기술 향상, 복분자주의 명품화 및 가공제품 다양화, 지역브랜드 및 지리적표시제 확립,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육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 추진체계

'07. 2월, 복분자산업 육성을 위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팀"을 편성하여 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당초 '04년도 2담당 8명으로 되어 있던 조직을 '07년 1팀 4담당 13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고창군의 사업추진의지를 밝혔다. 복분자산업 지원 관련 주요 조직으로는 연구기술을 담당하는 지역농업기술센터소속의 복분자시험장('98. 12월 설립)과 복분자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으로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07. 2월 설립)가 있다. 복분자시험장은 복분자와인연구, 복분자주 생산기술,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소는 복분자 생산·가공, 복분자 홍보·유통, 경관육성,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고창복분자 세계명품화연구회('04년 3월 구성), 복분자생산조합, 복분자주생산자단체 협의회 및 복분자클러스터 추진단('05년 구성) 등이 고창 복분자산업을 지원한다.

○ 주요성과

민간단체와 협의회를 운영하여(2007년 10회)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종합발전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산자단체 법인도 7개에서 1개로 통합하였고 수매단체도 기존 8개에서 1개의 법인으로 통합하였으며 주류와 음료 가공업체도 기존 9개, 14개에서 공동 법인으로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생산·가공 매출액은 '04년 205억, '05년 296억, '06년 375억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복분자 생산판매로 인한 농가조수익은 '04년 198억, '05년 253억, '06년 292억으로 늘어나고 있다. 활발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07년 복분자(생과)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하였다.

○ 집행실태

혁신리더교육 실적으로 보고한 사안 중 일부가 집행기록이 없으며, '05년 사업의 많은 부분이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가공시설 개선,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지원 등의 보조사업 성격에 집행되었다. '06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 홍보·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다. '07년도에는 다시 가공업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복분자홍보관 건립공사 선급금 지급이 눈에 띈다.

<표 44-1> 고창군-복분자 클러스터산업 종합발전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905	3,285	20	600	1,836	1,234	2	600	47.0
'06	4,205	2,800	345	1,060	4,110	2,710	340	1,060	97.7
'05이월	2,625	2,447	18	160	2,533	2,358	15	160	96.5

○ 인센티브

<표 44-2> 고창군-복분자 클러스터산업 종합발전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500	300	800	300	1,100

(3) 농·도간 활발한 교류협력 중점 유형

화천군 :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

o 개요

화천군은 토고미마을 등 그린투어리즘의 선도마을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찰토마토축제 등 지역적 특성과 특산물을 잘 연계한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잘 알려져 있다. 新활력사업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o 추진체계

군청의 자치행정과가 주축이 되는 新활력사업추진단과 지역주민, 그린투어리즘 협의체, 친환경농업작목반이 주축이 되는 사업추진반, 그리고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 주요성과

무엇보다도 선도마을 육성과 성공적인 축제를 이끈 혁신리더의 발골이 눈에 띈다. 산천어 축제를 성공시켜서 '06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장석범, 토고미마을을 그린투어리즘의 선도마을로 이끌어 '06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한상열, 파로호생태마을을 환경친화적으로 가꾸고 친환경농업 단체를 조직하여 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한 공로로 '05년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한 김두봉, 산속호수마을(동촌리) 대표로 '06년 농촌마을가꾸기 장려상을 수상한 박세영 등이 집행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화천군 新활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선도마을 육성에 있어서 마을단위FD를 운영한 것은 매우 독특한 발상으로서 '06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07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후원문이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하였다.

화천군 新활력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는 축제, 특히 화천군의 대표적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 지원으로 인한 지역 내 파급효과이다. 산천어 축제 방문객은 87만명('05), 103만명('06), 125만명('07)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06년 생산유발효과 485억원, 소득유발효과 1,232억원, 관광객직접유입액 421억원에서 '07년 생산유발효과 620억원, 소득유발효과 162억원, 관광객직접유입액 54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겨울철 농가부업으로 시작한 단호박전빵은 축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특산품

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新활력사업 지원으로 인한 찐빵 판매실적은 74백만원('05)에서 113백만원('06)으로 증가하였다. '07년에는 토고미마을에서 기획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한 쌀가공식품 '토고미쿠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선도 지자체답게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 것도 新활력사업으로 일군 작은 성과 중의 하나이며, 화천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아카데미(30명 대상으로 지역 알기, 연극 클럽, 종이접기 클럽, 레크레이션 클럽의 프로그램을 모두 영어로 진행)를 운영한 것도 독특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o 집행실태

전반적으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한 지역축제지원, 혁신리더 육성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농특산물가공공장 지원이나 친환경농산물시범단지 조성 등에 일부 보조사업 성격의 집행실적이 눈에 띈다.

<표 45-1> 화천군-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335	3,335	0	0	2,021	2,021	0	0	60.6
'06	4,382	3,600	580	202	2,974	2,462	310	202	67.9
'05이월	2,117	2,117	0	0	2,117	2,117	0	0	100.0

o 인센티브

<표 45-2> 화천군-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300	0	300	600	900

함평군 :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o 개요

"나비·곤충산업의 메카! 함평"을 비전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육성, 함평나비 지역이미지 강화, 지역소득기반 확충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o 추진체계

함평군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사업의 조정과 연계운영을 담당한다. 함평군 혁신분권 담당(기획·조정)과 혁신프로젝트 팀(실무 추진), 함평군 곤충 R&D센터(나비·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범사업)는 사업 기획과 실무추진을 담당하고, 나비·곤충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 곤충산업지원연구회(곤충산업 산학연관 연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나비·곤충산업 육성), 광주·전남혁신연구회(지역리더 육성), 동신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생태학습리더 양성), 기타 연구기관(곤충 생태 연구 정보 공유)은 교육과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나비·곤충마을협의회 등은 나비마을 홍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다.

o 주요성과

나비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례로 나비·곤충 사육농가가 증가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

구 분	계 (2005~2007)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근거자료
사육농가 고용증대	5마을/26명	1마을/1명	2마을/10명	4마을/20명	5마을/26명	나비·곤충 마을 연도별 판매수입
판매수입 증대	636,000	60,000	98,000	196,000	342,000	
사육품목 증가	나비 등 5종	장수풍뎅이	나비 사슴벌레	꽃무지, 수서곤충	나비	

또한, 함평군 통합RPC, 나비골농협, 나비랑버섯, 연꽃나비, 나비고을 황토, 함평천지 왕골돛자리, 무화과작목반,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등 군의 주력품목업체의 신상품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연합마케팅 등을 통하여 29명의 고용창출 및 50억원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다.

구 분	계 (2005~2007)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고용창출	321	87	96	109	116
매출액	100,020	29,660	30,810	34,630	34,580

○ 집행실적

생물농업개발실 및 나비곤충 R&D센터 신축공사(4억59백만), 나비곤충생태관 정비(2억34백만), 애벌레생태학교 증축(1억), 나비·곤충보급생산종 시험포 및 교육장 설치(2억) 등의 시설사업에 많은 新활력사업비를 집행하였다. 보조사업 성격의 집행이 많은 편이다.

<표 46-1> 함평군-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239	2,535	0	704	2,121	1,417	0	0	36.7%
'06	3,000	3,000	0	0	1,710	1,710	0	0	57.0%
'05이월	2,403	2,403	0	0	1,550	1,550	0	0	64.5%

○ 인센티브

<표 46-2> 함평군-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집행실태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300	0	300	0	300

봉화군 : 파인토피아 봉화 新활력사업

o 개요

봉화군은 연간 1천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재가 부족하였다. 지역 내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교류가 미흡하였고, 성장동력산업이 없었다. 또한 타 경쟁시군에 비해 봉화군만의 지역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 요소를 발굴하지 못하여 지역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춘양목을 테마로 하는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o 추진체계

新활력 T/F팀의 의견수렴, 지역혁신협의회의 계획심의, 유관기관(민·관·학·연),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감사실이 사업을 총괄하여 시행한다.

o 주요성과

봉화군은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이름 아래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등을 개최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6년도에는 16개 농가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505명의 관광객이 봉화를 방문하였다.

'06년도에 춘양목 숲 아카데미를 2회에 걸쳐 운영하여 77명 중 51명이 수료하였다(숲 해설사 6명 위촉).

'05년도에는 송이제품(송이김치)포장재를 지원하여 일본, 싱가포르 등에 1,300만불을 수출하였다. 또한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브랜드 이미지 슬로건을 개발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06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o 집행실태

'05년에는 마을별 지역혁신리더 위탁교육(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파인토피아봉화아카데미 위탁교육(명소IMC) 등이 대표적인 혁신리더 육성사업이다. '06년에는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탁(명소 IMC)하였고, 맞춤형 행정혁신교육을 위탁(유답)하였다.

'05년에는 다목적캠핑장 조성 사업(1억 7백만원)이 시설사업비로 눈에 띈

다. '06년에는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조성 공사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춘양목 산림체험관 신축공사 선급금 및 공사비, 관급자재 지급 등에 막대한 新활력사업비가 집행되었다. 이밖에 여러 가지 마을숲조성공사, 소공원 조성공사, 학교주변 푸른숲 가꾸기 등이 시설비항목으로 상당한 新활력사업비가 집행되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06년에도 상당한 사업비(6억 93백만원)가 집행되었다.

<표 47-1> 봉화군-파인토피아 봉화 新활력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510	4,135	295	1,080	3,711	2,336	295	1,080	67.4
'06	3,833	3,300	500	33	2,381	1,881	500	0	62.1
'05이월	4,201	3,508	0	693	3,946	3,253	0	693	93.9

o 인센티브

<표 47-2> 봉화군-파인토피아 봉화 新활력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500	600	1,100	300	1,400

3.6 기타 시군 사례

강화 : 강화 특산품 브랜드 파워 창출

o 개요

강화군은 지역특화작목인 **약썩과 순무의 브랜드 파워 창출**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 브랜드파워 창출에는 기능성 고급육을 생산하는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꾀들이고 지역 농수특산물의 생태지도 제작과 관광농업개발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o 추진체계

연구·교육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소, 경희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및 산업체((주)이룸, (주)닥터코리아)와의 역할 분담이 눈에 띈다. 협의회 위탁교육을 수행한 (주)유담('05)이나 한국능률협회('06)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혁신체계 구축 측면에서 가능하면 인근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지속적인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활동은 강화약썩연구회, 강화관광농업연구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강화약썩육묘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지역혁신협의회 위탁 교육 이외에 혁신리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려는 노력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o 주요성과

강화군 新활력사업의 특징은 석·박사급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특화작목연구실**을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개발연구를 지자체 스스로 수행한다는 점으로 그간 **강화약썩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시하여 **특허 등록 5건, 실용신안 등록 1건, 의장등록 1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06). 물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지자체 스스로 실시한다는 데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 고유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적재산권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눈에 띄는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여타 新활력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03년까지의 감소세가 '04년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이 특이하다. 혹자는 도선료 할인 등의 주민 우대제도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숨은 인구를 찾아내려는 생각을 품게 된 것만도 혁신적인 사고 전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8-1> 강화군-강화 특산품 브랜드 파워 창출 사업을 통한 인구변화

'00	'01	'02	'03	'04	'05	'06
67,100	66,860	65,698	65,044	65,114	65,389	65,510

또한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약쑥의 **우량종묘**를 연 100만본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40ha로 확대한 것도 성과의 하나이며 이의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이룸, (주)닥터코리아 등과 협약(생쑥 20M/T, 건쑥 250M/T)을 체결한 것은 더욱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o 집행실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에 다소 비중이 높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구·개발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눈에 띈다('05 : 강화특화작목 로고 및 엠블렘 제작, 홍보동영상 용역).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위탁교육비를 일반운영비로 처리한 것도 눈에 띈다('05 : 유답, '06 : 한국능률협회 위탁).

우량종묘 보급사업에서 일부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눈에 띄지만 약쑥육묘장 시범사업이라는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05년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779백만원)보다 '05이월액(826.2백만원)이 더 큰 것은 다소 의문이다.

<표 48-2> 강화군-강화 특산품 브랜드 파워 창출 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2,768.0	2,635.0	133	0	1,989	1,856	133	0	71.9
'06	2,079.0	2,000.0	6	73	1,746	1,667	6	73	84.0
'05이월	826.2	826.2	0.0	0.0	809	809	0	0	97.9

o 인센티브(단위 : 백만원)

<표 48-3> 강화군-강화 특산품 브랜드 파워 창출 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0	600	600	0	600

양양군 : 송이 클러스터 육성사업

○ 개요

양양군은 송이산지가 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가을철 송이버섯 채취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구 수가 1,300여 가구에 달하지만 그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4~6톤을 생산할 뿐이다. 또한, 송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채취 위주의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수확기는 가을 한 철에 한정되어 연중공급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양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송이버섯과 관련한 연구·개발,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을 新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 추진체계

관, 민, 외부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잘 협력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新 활력사업의 총괄은 관의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지역협력단(자문·컨설팅), 지역혁신협의회(심의·조정)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혁신리더교육(인간개발연구원, 지역활성화센터)을 주관하면서 외부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 부문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며 강원대학교(송이균환연구), 국립산림과학원(연구 자문)과 협력하고 있다. 송이 생산과 유통 부문은 관의 농정산림과가 주축이 되어 산지환경개선, 지리적표시제 지원, 생태체험장 관리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송이농가(생산인프라관리, 생산), 영양산림조합(생산인프라 구축),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지리적표시제 브랜드 관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송이 축제 부문은 관의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 양양송이축제위원회(축제 홍보 및 진행), 평가(관광경영학회, 경기대, 강원대) 등과 협력하고 있다.

○ 주요성과

중국산 송이나 타 지역 송이가 양양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을 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한 결과 산림청 1호로 등록을 완료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한 송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띠지를 부착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중간상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양 송이를 차별화하여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07년 송이 유통과정에서는 띠지 보급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평이다.

연구개발은 송이 인공재배를 가능케 하려는 송이균환확대 연구사업으로 대표된다. 송이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균환이 사멸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송이균환을 증수하기 위한 연구실험 결과 배양종균의 DNA가 자연산 송이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인공재배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송이 직접 판매 소득은 '04년 5억77백만원, '05년 7억41백만원, '06년 7억61백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06년은 심한 수해와 화재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증대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이 가공상품의 4계절 공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을 육성한 결과 5개업체에서 25종의 제품개발을 완료하였다. 송이 가공상품의 매출은 '04년 46억, '05년 51억, '06년 63억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송이 축제 지원으로 인한 판매 소득은 '04년 89억, '05년 97억, '06년 102억으로 증가 추세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04년 310억, '05년 360억, '06년 42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06년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바 있다.

○ 집행실태

'05년 사업이 송이 생산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06년부터는 혁신리더양성사업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송이 생산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송이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뿐 아니라 지방비와 민간 대응자금이 많이 투자되었으며, 송이 축제지원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송이가공산업 제품개발지원의 경우 민간자부담 비율이 지원 대상자 별로 각각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혁신리더양성사업은 '06년부터 집행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05년 실적은 준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49-1> 양양군-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2,844	2,535	144	195	2,539	2,232	112	195	89.3
'06	3,477	3,100	83	294	2,557	2,181	82	294	73.5
'05이월	535	503	32	0	391	361	30	0	73.1

○ 인센티브

<표 49-2> 양양군-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0	0	0	600	600

정선군 :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 개요

"백두대간 약초나라 구축"을 목표로 생약초 연관 산업을 정선군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생약초 재배의 복합산업화로 안정적인 농촌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추진체계

농업기술센터 내 新활력사업 전담팀, 농업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가 주축이 된 생약초 지역협력단을 구성하고 연구기관으로 강원대, 상지대, 경희대가 참여하며 재배농가와 한국식품개발원, 강원랜드, 국순당 등의 관련기업과 지역 농협 등 농업지원기관, 언론·사회 단체등과 행정기관인 정선군의 참여로 민·관·산·학·언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주요성과

新활력사업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세 차례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다. 고품질 생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마련, 정선황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07년 2월), 오가피 발효주 오가명작 생산과 (주)국순당을 통한 유통망 확보, 백두대간 약초나라 영농조합법인 결성 등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다.

※ 정선5일장 방문객, 레일바이크 관광객 증가를 新활력사업 성과로 꼽고 있으나 실제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살펴볼 때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집행실태

'05년 사업의 경우 생약초 생산기반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을 집행실적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보조사업 성격의 집행실적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 그간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발적 발전 모델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혁신리더교육도 생약초 전문 인력이나 농촌마을리더 양성에 치우쳐 정선군의 미래를 지고 나갈 혁신주체 육성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06년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 약초나라 영농조합법인"에 시설사업(생약초 가공공장 신축, 생약초 판매장 확충, 시범재배 및 전시포 설치, 가공식품 시음 및 판매장 신축 등) 성격의 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표 50-1> 정선군-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521	3,435	376	1,710	5,456	3,370	376	1,710	98.8
'06	4,790	2,800	579	1,411	4,078	2,541	564	973	85.1
'05이월	2,894	2,544	350	0	2,813	2,463	350	0	97.2

o 인센티브

<표 50-2> 정선군-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500	400	900	300	1,200

평창군 : 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전반적으로 무언가 허전합니다.)

○ 개요

평창군은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관건임을 인식하고, 평창의 인지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고랭지 농업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하고 "HAPPY700"브랜드와 연계하여 생산 활동 및 유통·마케팅에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체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브랜드 명품화, 브랜드 체험관광의 3개 사업을 농산물 연합사업단, 연합 GT 사업단, 품질인증위원회, 평창군(농정과)의 유기적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연합사업단은 단장, 전문마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8개 품목별 작목회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GT사업단은 평창그린투어센터, 기획홍보팀, 농박협의회, 체험마을협의회, 레포츠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연합사업단과 평창그린투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 주요성과

혁신리더 교육 성과로 우선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1년 과정) 운영 실적을 들 수 있다. 1기 77명을 배출하였고, 2기 86명이 수강 중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밖에 매월 2회 200~3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HAPPY700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HAPPY700포럼과 농촌관광서비스 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교육도 혁신역량강화사업 실적으로 나와 있다.

평창군 新활력사업의 특징은 민간사업 조직을 결성하고 철저하게 민간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은 외부전문가 연계 및 사업가이드라인 제시와 HAPPY700브랜드 인증 관리에 국한하고 있다.

연합마케팅 농산물 연합마케팅으로 2005년 5품목 41억원에서 2006년 8품목 51억원으로 판매소득이 증가한 것을 주요성으로 꼽고, 연합GT사업단의 경우 '05년 80회원에 불과하던 것이 '06년 110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회원과 웹사이트 접속회수가 폭증한 것을 주요성으로 꼽고 있다.

○ 집행실태

'05년부터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 운영(지역활성화센터), HAPPY700포럼운영(상지대) 등의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06년에는 HAPPY700아카데미 운영(인간개발연구원)까지 확대하여 상당히 내실있는 혁신리더 육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집행실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연합사업단과 평창그린투어센터의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선별기(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등) 설치, 브로콜리아이스머신 설치 등의 일부 보조사업 외에는 철저하게 홍보·마케팅 활동에 투자하고 있음 또한 집행실적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표 51-1> 평창군-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2,980	2,735	20	225	2,158	1,920	13	225	72.4
'06	3,900	2,500	1,060	340	3,269	1,929	1,000	340	83.8
'05이월	2,084	1,967	0	117	1,226	1,226	0	0	58.8

○ 인센티브

<표 51-2> 평창군-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300	400	700	900	1,600

보은군 : 보은 황토 특화사업

○ 개요

보은 황토를 주제로 사과, 대추, 한우를 공동브랜드로 육성한다.

○ 주요성과

혁신역량강화사업 성과가 전혀 없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며, 주요 성과로 꼽고 있는 실적들도 대부분 요소투입에 따른 산출지표에 불과하다.

○ 집행실태

보은황토대추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지원, 황토한우 거세장려금 지급, 보조사료(일라이트)구입 지원, 자연재해경감 신모델과원 개발 사업보조 등 농가보조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新활력사업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집행사례이다.

<표 52-1> 보은군-보은 황토 특화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200	2,835	0	365	2,817	2,504	0	313	88.0
'06	3,696	2,800	0	896	3,067	2,471	0	596	83.0
'05이월	1,029	876	0	153	966	813	0	153	93.9

○ 인센티브

<표 52-2> 보은군-보은 황토 특화사업 집행실태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0	300	300	300	600

증평군 : 지역특화자원(인삼, 동과, 달맞이꽃)의 산업화

○ 개요

증평군은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청장년층이 없어 지역혁신역량마저 부족할 뿐 아니라 인삼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지역특화 자원이 없으며 신설 군으로써 내생적 발전역량 및 자립기반의 부재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지역침체는 물론 낙후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新활력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農都相生 관계 설정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융화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추진체계

인삼재배확대, 체험마을 조성을 담당하는 지역민,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민,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충북인삼조합 등의 산, 인력육성,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충주 대학교 증평캠퍼스의 학, 행정적 지원 및 인삼축제행사를 담당하는 군청의 관으로 구성된 인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2006년 1월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 내에 지역혁신센터를 설치하여 혁신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혁신센터와 FD의 자문·교류·환류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기술약정 및 행정협약을 담당한 군, 관내생산농가의 원료 공급으로 선도농가 및 기술 보유 협력업체가 가공·유통을 담당하며, 관내 농협 및 기업이 관내생산농가에 기술지원을 하는 인삼·동과·달맞이꽃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성과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의 RIS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도 新활력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도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2005년 개장된 증평인삼바이오센터의 유통시설을 2006년 10월 증평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1일 판매액이 기존(1,355천원)보다 상승(2,124천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매월 1억원 내외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 1월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에 증평군 지역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지역혁신리더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제품 개발 등 컨설팅을 담당토록 한 것 또한 성과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 집행실태

자체평가보고서에서 기록하였듯이 '05-'06년도에는 증평인삼바이오센터 건립, 율리문화체험 휴양촌 조성, 마을특성화사업 보조, 저온저장고 설치 등의 HW시설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율리문화체험 휴양촌 조성에는 지방비조차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자칫 新활력사업 비로 거대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에 나와 있는 동과와 달맞이꽃에 대한 집행 실적은 전혀 없어 계획과 실적이 매우 다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표 53-1> 증평군-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687	2,535	3,062	90	3,219	162	3,057	0	56.6
'06	5,011	3,400	1,067	544	3,305	1,891	870	544	66.0
'05이월	2,524	2,434	0	90	2,524	2,434	0	90	100.0

○ 인센티브

<표 53-2> 증평군-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0	0	0	900	900

금산군 : 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 개요

한국삼은 중국삼, 캐나다삼 등의 영향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없어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의 위상이 나날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금산군 新활력사업은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인삼 약초산업을 세계화하고 고용증대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100% 믿을 수 있는 명품농산물(추부갯잎 등)을 생산, 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 추진체계

Actor육성, 포럼운영, 주민자치대학 운영, One-Stop 자문체계 운영을 담당하는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GAP 사업단 운영, 생산이력 및 역추적 시스템 운영, 소비자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명품농산물의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 품질인증제 실시, GMP 시설 구축, 우수 농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농산물 처리 및 가공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수출 및 MOU 체결, 인삼약초 종합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홍보 및 마케팅 시스템 구축 사업**, 수삼센터 현대화, 인삼약초시장 현대화, 생약시장 현대화, 인삼경매제 실시를 담당하는 **지역혁신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별로 금산인삼농협, 만인산농협, 추부갯잎작목반, 인삼연구회 등이 민간 주체로 참여하고, 배재대, 중부대, 충남대 등 인근 대학 들이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벤처농업포럼, 한국생산성본부 등은 혁신리더교육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관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 주요성과

2006년도에는 인삼약초산업 CEO 육성 34명, 인삼 GAP 농가 육성 42명, 갯잎 GAP 농가육성 27명 등 혁신리더 발굴 및 인력양성 실적이 있고 중국 향주시 및 현지 업체 5개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 추부갯잎 19,266천원을 수출하였다.

'04년부터 '06년까지 인삼과 갯잎의 생산량, 재배면적, 거래량 및 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삼축제의 관광객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은 성과지표로 보기에 적절치 않다.

○ 집행실태

금산 CGB 농촌관광대학과 관련한 집행실적이 없다. 그밖에 실적보고에는 있으나 집행기록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성과들이 가끔 눈에 띈다. '05년의 경우 인삼연작장해해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및 생물제제 지원 등의 보조 사업이 눈에 띄고, 금산약초시장 유통매장현대화사업과 금산수삼센터 수매장 현대화사업과 같은 시설사업에 상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06년도의 경우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표 54-1> 금산군-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4,027	3,135	0	892	2,372	2,080	0	292	58.9
'06	3,335	2,000	39	1,296	2,351	1,016	39	1,296	70.5
'05이월	2,913	2,396	0	517	1,691	1,174	0	517	58.1

○ 인센티브

<표 54-2> 금산군-금산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500	600	1,100	0	1,100

부여군 : 백제왕조 굿뜨래 부여 특화

○ 개요

부여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인적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1차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2차·3차 산업 융합화 추진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 굿뜨래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1·2·3차 지역산업의 체험, 굿뜨래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특화된 먹거리와 다양한 가공식품개발, 자연환경과 농촌생활의 가치를 건강으로 극대화한 농촌체험 관광사업, 백제투어 활성화를 추진하여 생산, 판매나 지역관광 등에 있어서 부가적인 경제적 파생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추진체계

지역혁신 조직운영, 혁신역량 강화, 향토지식품 구축, 생산기반조성, 굿뜨래 홍보 마케팅 강화, 굿뜨래 명품화, 5도 2촌 프로그램, 굿뜨래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해 관, 산, 학, 연이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관은 문화관광과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고 민은 이장단협의회, 농업경영인 협의회, 관광발전진흥회 등이 참여하며, 학은 경기대, 공주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이 참여한다. 연구기관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 참여하였다.

○ 주요성과

굿뜨래 명품화를 통해 2005년 매출 714억원이 2006년 998억원으로 늘었으며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 또한 같은 기간 44조직에서 110조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굿뜨래 백제 투어 활성화를 통해 서동요 테마파크 관광수익과 농촌체험 수익이 2005년 473백만원에서 2006년 96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서동요테마파크 관광객은 22,640명에서 268,33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동연꽃축제 관광객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 집행실태

혁신리더 육성에 매우 미흡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新활력사업의 취지와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05년의 경우 1읍면1굿뜨래농산물 육성사업, 수박, 양송이 친환경 자재이용 버섯파리 종합 방제 시범사업, 토마토 양액관비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굿뜨래 수박품질 향상 연작대책 시범사업 등의 보

조사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06년도에도 1읍면1곳뜨래농산물 육성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었고, 서동요오픈세트장 운영에 매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 집행은 매우 미흡하였다.

<표 55-1> 부여군-백제왕조 굿뜨래 부여 특화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4,485	2,035	2,100	350	3,130	1,188	1,592	350	69.8
'06	3,563	2,600	258	705	2,808	1,866	237	705	78.8
'05이월	1,471	1,071	400	0	1,300	906	394	0	88.4

○ 인센티브

<표 55-2> 부여군-백제왕조 굿뜨래 부여 특화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0	0	0	600	600

부안군 : 부안 누에타운 조성

o 개요

부안의 유유마을은 전국 유일의 누에마을로 전국 최대 규모의 뽕나무를 보유(50ha)하고 있으며 이를 웰빙시대 건강 기능성 고부가가치 누에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뽕잎, 오디, 누에그라, 실크, 음료 등의 1, 2, 3차 산업을 발굴한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영상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산업으로 낙후된 잠업을 세계적인 명품화 사업으로 육성한다.

o 추진체계

부안 누에타운 조성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원과 전북원종사업소의 기술지원, 농촌경제연구원과 원광대학교, 그리고 누에타운 지역협력단의 누에타운 사업 관련 자문·컨설팅, 新활력 혁신협회의 新활력사업 자문·컨설팅, 부안군은 사업계획수립과 행정지원, 한국 농촌공사는 누에특구계획을 수립한다.

o 주요성과

'06년 9. 12, 부안누에타운 특구가 지정되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서 부안 누에타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 뽕나무 재배단지는 60ha에서 210ha로 증가하였고 농가수는 45농가에서 420농가로 증가하였으며 가공업체수는 2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50명에서 연간 1,250명으로 증가, 잠업관련 산업소득은 연간 24억원에서 연간 1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o 집행실태

부안군은 사업초기 누에타운 편입토지 보상금을 新활력사업비로 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디뽕 냉동저온저장 활성화 시설, 오디뽕 이용시설 등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물론,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민간자부담이 수반되었으나 新활력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추진실적이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에 치중하다보니 혁신역량강화사업 관련 집행실적은 전혀 없다. '06년도에도 부안누에타운 조성 관련 집행실적이 주를 이룬다. 부안누에타운 조성사업 특구 실시시설계용역(4억 77백만원), 부안누에타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37백만원), 부안누에타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50백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05년에 이어 오디뽕나무 식재지원, 오디뽕 상품개발 및 이용시설 지원, 오디뽕 냉동저장시설 지원 등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표 56-1> 부안군-부안 누에타운 조성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635	2,935	0	700	2,521	2,021	0	500	69.4
'06	3,900	3,100	0	800	1,870	1,070	0	800	47.9
'05이월	3,274	2,574	0	700	2,474	1,824	0	650	75.6

o 인센티브

<표 56-2> 부안군-부안 누에타운 조성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0	400	400	600	1,000

순창군 : 발효천국 순창 조성

○ 개요

순창은 지역총생산액의 52%를 점유하고, 2차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인 장류원료, 3차 산업인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新활력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장류 다차산업 육성, 친환경장류원료 생산기반조성, 계약재배 활성화, 장류 생산 공정개선 및 유통혁신, 마케팅홍보 지원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추진체계

고추, 콩 등을 재배하는 장류원료생산농가, 1차 산업 지원기관으로 농협과 농촌공사, 연구기관으로 순창장류연구소, 순창장류기술연구회, 전북대 RIC, 서울대 등 16개 MOU 체결기관, 행정지원기관으로 장류식품과와 장류연구소, 2차 산업으로는 고추장민속마을, 전통장류제조업체, 공장장류제조업체 등 75개소의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다.

○ 주요성과

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장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R&D기반과 실질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북대 식품생명공학 분원 개원('07. 4)과 기업인턴연구원제 실시, 장류혁신대학 운영 등으로 장류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류원료 시범포 조성과 계약재배를 통한 장류원료 생산기반 확대, 장류전용 농공단지 조성, 마케팅지원을 위한 장류체험 활동 강화로 다차산업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다. 숙박시설을 갖춘 순창장류체험관을 건립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순창의 장류시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으로 매년 5~10%씩 성장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고용과 매출이 증대하고 있다.

○ 집행실태

순창장류체험관 건립에 많은 新활력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중형관정개발사업, 장류원료재배기반 조성,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50% 이상의 자부담과 함께 新활력사업비가 집행되었다.

<표 57-1> 순창군-발효천국 순창 조성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4,468	3,535	80	853	2,446	1,560	65	821	54.7
'06	4,715	3,000	680	1,035	3,141	1,668	584	889	66.6
'05이월	2,745	2,486	15	244	2,372	2,167	0	205	86.4

o 인센티브

<표 57-2> 순창군-발효천국 순창 조성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500	0	500	0	500

장수군 :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

o 개요

장수군은 경지면적이 15%, 임야가 7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중간산지로써 기존 농업 규모가 영세하고 산지개발 및 유희 농지 이용 극대화를 위해 한우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 의욕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한우 전국 브랜드화로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한다.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 생산이력 관리, 친환경순환농업모델 구축, R&D 및 유통·마케팅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o 추진체계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은 장수군이 행·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축협 육가공공장, 도축업, 유통업, 축산기자재, 요식업체 등이 산업 분야에서 참여하며, 전북대학교외 4개교, 축산진흥연구소, 종축개량협회, 정 P&C 연구소, 다산아이티에스, 굿파트너비즈 등이 R&D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장수 농·축협이 생산이력관리, 농기기술보급,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한다. 축산농가, 증부한내, (주)홈에버, (주)신세계마트 등은 각각 생산, 가공, 판매를 담당한다.

o 주요성과

한우 사육은 2004년 1,605농가 14,307두에서 2006년말 1,734농가 19,756두로 약 38%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소득은 2003년 133억원에서 2006년 247억원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한우사육과 더불어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총채보리 및 호밀 재배가 증가하였다.

o 집행실태

'06년의 장수사랑 자치학교 운영실적은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나와 있으나 집행기록부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한우 관련 전문교육은 상당히 많이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장수군의 미래를 끌어갈 혁신리더육성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반면에 유기질비료공급('05, 국비 4억, 자부담 4억), 수분조절제공급('05, 국비 2억, 자부담 2억), 한우구충제보조 등의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있었으며, '06년도에는 월곡축사 부지매입에 新 활력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약 16억원).

<표 58-1> 장수군-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286	3,935	736	615	4,536	3,185	736	615	85.8
'06	4,852	3,900	427	525	3,751	2,799	427	525	77.3
'05이월	2,233	1,316	94	823	2,231	1,314	94	823	99.9

○ 인센티브

<표 58-2> 장수군-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300	600	900	900	1,800

진안군 : 생태건강산촌 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

o 개요

진안군은 국내 5번째 규모의 용담댐 건설로 인구 20% 감소, 농경지 15% 수몰을 겪었다. 전체 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47.1%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재배 품목이 열악하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안군은 진안알리기, 경제살리기, 인재만들기를 新활력사업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o 추진체계

진안군의 지역혁신팀은 FD 및 자문단의 정책 자문과 지역혁신협의회의 혁신사업 제안으로 외부학계와 연구소, 지역주민 및 단체, 지역산업계가 참여하는 新활력 사업 전체 TF 팀을 운영한다.

o 주요성과

마을간사(12명), 평생학습지도자(12명), 마을조사단(8명) 등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 확산 중에 있으며 건보외 40개 인삼(홍삼) 가공업체에 186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건보외 48개 홍삼·인삼류의 매출액이 12,889백만원을 올리고 있다.

o 집행실태

'05년도 사업에서는 홍삼약초 친환경재배확대 지원, 홍삼가공 GMP시설 지원, 토종약초 친환경특화단지 조성 등에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표 59-1> 진안군-생태건강산촌 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805	4,135	2,767	1,394	4,033	2,519	271	1,244	69.5
'06	4,525.5	3,000	0	1,525.5	4,027.7	2,592.2	0	1,435.5	89.0
'05이월	4,009.4	3,123.7	6	879.7	3,842.4	2,965.7	6	870.7	95.8

o 인센티브

<표 59-2> 진안군-생태건강산촌 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500	600	1,100	0	1,100

영암군 : 氣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대방안

○ 개요

영암군의 지역브랜드인 “氣”를 활용한 사업 발굴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추진 주체 그룹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킹하여 교육, 정보교류, 기술 개발, 지역 내 산업체 경영 지원을 수행한다.

○ 추진체계

新활력사업 추진 클러스터사업단에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협력단, (사)미래산업기술연구원, 군청이 참여하여 기술개발, 주민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공동마케팅,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한다. 네트워킹 사업은 무화과산업 분과를 비롯한 8개 분과의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추진한다. 여기서 8개 분과는 무화과산업, 김치식품, 전통차, 쇼핑몰, 친환경농업, 콩발효식품, 향토산업, 건강식품등이다. (주)기찬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

○ 주요성과

21영암포럼, 영암기공교육, 기과학교육, 기교양강좌, 기체조전문가 양성교육, 영암기공교육 등 다양한 혁신리더육성사업이 눈에 띈다.

○ 집행실태

주요 참여기관의 하나인 (사)미래산업기술연구원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집행상 큰 특징이다. 기웰빙도로개설공사비(6억 10백만원) 지급이 크게 눈에 띄지만 기건강센터부지매입은 지방비로 집행하였다.

<표 60-1> 영암군-氣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대방안 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435	2,635	800	0	2,971	2,171	800	0	86.5
'06	3,200	2,600	500	100	3,200	2,600	500	100	100.0
'05이월	1,294	1,294	0	0	1,294	1,294	0	0	100.0

○ 인센티브

<표 60-2> 영암군-氣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대방안 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0	600	600	600	1,200

담양군 : 대나무 신산업화 사업

○ 개요

담양군은 전국 죽제품의 90%를 생산하고, 전국 죽림면적의 14%를 차지하는 대나무 관련 산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대나무 조림 및 관리, 대나무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에 기반을 둔 농축 특산물의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을 수행한다.

○ 추진체계

담양군은 新활력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전남대학교와 도립남도대학은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들은 죽공예 디자인 개발, 후계 육성, 대나무 조림 및 숲 가꾸기에 참여한다. 전남대 다산바이오사업단은 대나무를 이용한 향토산업 활성화에 참여하여 대나무 관련 신소재 식품 개발, 조경, 디자인 등 14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한다. 대나무 문화연구회는 대나무 축제 봉사활동과 대나무 해설사 양성을 맡는다.

○ 주요성과

대나무 축제 및 박람회 개최에 따라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향토지식재산권 관련 로열티 수입, 죽초액 약취제거 시스템 개발에 따른 탈취제, 세정제, 축산환경개선 매출 수입이 증대하고 있다.

○ 집행실태

죽엽차 제조방법, 죽초액, 포장용 대나무통, 죽엽국수 제조방법, 대나무 조명등, 대통밥 제조방법 등 대나무 신산업 육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61-1> 담양군-대나무 신산업화 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935	3,135	250	550	2,101	1,827	100	174	53.3
'06	3,112	2,500	250	362	2,476	1,864	250	362	79.6
'05이월	2,750	2,224	150	376	2,361	1,835	150	376	85.8

○ 인센티브

<표 61-2> 담양군-대나무 신산업화 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300	300	600	0	600

무안군 : 무안백련클러스터 구축 사업 사업

○ 개요

무안백련을 테마로 RIS구축,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추진체계

무안군은 新활력사업을 총괄기획하고, 백련축제 개최 및 홍보, 가공공장 설치 및 지적재산권 확보, 연구개발, 생산면적 확대, 마케팅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목포대, 경희대, 전남대, 동의과학대는 백련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참여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하늘백련"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 (주)다연, (주)범우, 현대영농조합법인은 백련 관련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주)황토량유통공사는 판매와 마케팅에 참여한다. 백련작목반 및 생산농가는 고품질 백련재배에 참여하고, 일로농협은 계약재배 육성과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성과

백련 가공에 따른 고용 및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04년 1개 업체에 불과하였던 것이 '06년 현재 9개 업체로 늘었으며, 고용 인력도 10명에서 120명으로, 품목은 2종에서 23종, 매출액은 2억에서 35억으로 늘었다. 특히, (주)범우의 백련라면 생산 공장 유치로 큰 성과를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집행실태

연맥주제조장 및 시음홍보장 설치사업에 지방비(1억5천만), 민자(1억5천만)와 함께 많은 新활력사업비(10억)를 집행하였고, 백련산지유통센터설치에 지방비(1억5천만), 민자(2억)와 함께 新활력사업비(6억5천만)를 집행하였다.

<표 62-1> 무안군-무안백련클러스터 구축 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775	2,035	1,590	150	3,265	1,725	1,390	150	86.5
'06	3,395	2,900	160	335	2,357	1,862	160	335	69.4
'05이월	1,432	1,192	240	0	1,347	1,131	216	0	94.1

○ 인센티브

<표 62-2> 무안군-무안백련클러스터 구축 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000	0	0	0	900	900

보성군 : 녹차 중심의 복합6차 관광산업 육성

o 개요

녹차를 중심으로 대마꼬막 등의 전통자원을 포함하면서 생산, 가공, 판매·유통과 문화·관광산업을 한 공간에 구현하는 복합 6차산업을 육성한다. 향토지식 풀 사업, 관광소프트웨어 개발, 통합 산업화 네트워크 구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

o 추진체계

지역혁신협의회는 혁신사업을 총괄하고, 보성군은 겨울철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은 녹차품질 개량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녹차 홍보), 보성군관광해설가협회, 보성관소리보존회(관광객 대상 소리 체험), 벌교변영회(꼬막축제 추진), 보성차문화협회(지역 차단체 육성), 보성군 차생산자조합(녹차 활용 관광 활성화),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녹차가공식품 개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녹차전문음식점 선정), 창해엔지니어링(녹차주 개발) 등은 민간 단체로서 녹차 관련 가공산업 육성, 관광 상품 개발에 참여한다.

순천대학교(녹차 가공제품 개발, 인적 네트워킹, 전문가 양성교육), 숙명여대(녹차음식 개발 및 전시) 등의 대학과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포장지 개발)은 교육 및 연구개발에 참여한다.

※ 한국음식연구원은 숙명여대 부설임.

o 주요성과

보성 다향제를 대표적인 국제 차문화행사로 정착시켰다. '07년 제33회 다향제에만 10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기계화가 가능한 차밭 확대에 따라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였고, 포장재 개발, 녹차음식 개발, 차만들기 체험장 조성, 건강식품 개발 등으로 녹차산업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체험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o 집행실적

녹차체험공방 건립(6억2천만)을 전적으로 新활력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녹차음식 조리사 양성, 마케팅 전문가 육성, 관광매니저 육성, 녹차관능 평가사 육성, 보성실고 지원 등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도 많은 新활력사업비를 집행하였다.

<표 63-1> 보성군-녹차 중심의 복합6차 관광산업 육성 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3,239	2,535	0	704	2,121	1,417	0	0	36.7%
'06	3,000	3,000	0	0	1,710	1,710	0	0	57.0%
'05이월	2,403	2,403	0	0	1,550	1,550	0	0	64.5%

○ 인센티브(단위 : 백만원)

<표 63-2> 보성군-녹차 중심의 복합6차 관광산업 육성 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3,000	300	0	300	0	300

청도군 :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 개요

청도군은 우리나라 최대 반시 생산 지역으로 전국 생산량의 30%와 경북 생산량의 63%를 차지한다. 반시 생산 지역은 관내에 고루 분포한다. 반시 산업은 청도군 지역 경제의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업클러스터 및 혁신역량강화, 생산기반,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 및 마케팅,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등 5대 부문으로 新활력사업을 추진한다.

○ 추진체계

청도군 新활력사업단은 총괄사업팀, 운영협의회,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총괄사업팀은 다시 사업 시행부서 실과소장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5개팀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 팀은 기획·조정팀, 사업1팀, 사업2팀, 사업3팀, 홍보·축제팀으로 구성되며 총괄사업팀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맡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민·관·산·학을 대표하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단은 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성과

청도 반시산업육성으로 고용이 '04년에는 70농가 560명에서 '05년에는 130농가 및 업체 1,950명, '06년에는 177농가 및 업체 2,65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청도반시의 재배면적 역시 '04년 1,611ha에서 '05년에는 7%증가한 1,729ha, '06년에는 1%더 증가 하여 1,747ha이 되었다. 청도반시 농가수와 생산량, 매출, 청도반시소득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청도반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혁신리더 발굴 및 인력양성 등 우수사례를 창출하였다. '05년도에 청도반시 BI 및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청도반시 新활력사업 가공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06년에는 전국 최초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물염색사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및 청도 감물염색 디자인 개발 패션쇼를 개최하였다.

○ 집행실태

'06년 사업비 집행기록만 제출하였다. 아이스 홍시 국제화 사업, 청도반시 감음료 및 주류산업 상품화 사업, 감말랭이와 곱감 대규모 사업 등이 보조사업 형태로 집행되었다. 민간 자부담은 50% 이내로 설정되었다.

<표 64-1> 청도군-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집행실태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05	5,543	3,435	130	1,978	4,701	2,880	130	1,691	84.8
'06	6,237	3,400	410	2,427	4,127.9	2,210.9	390	1,527	66.2
'05이월	3,805	2,229	98	1,478	3,797.4	2,221.4	98	1,478	99.8

○ 인센티브

<표 64-3> 청도군-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인센티브

국고 기본지원액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총계
2,500	500	400	900	900	1,800

3.6 부진 사례

(1) 중부권

O군은 도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이다. '05년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예산 감액 신청을 할 정도로 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했던 지역이다. 그 여파로 여전히 사업집행이 부진하고 섬 별로 특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탈락한 사례이다.

H군은 사업 추진체계에서 철저하게 관이 역할을 하지 않은 사례이다. 지역발전연구원과 특정 대학에 모든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였다. 新활력사업의 취지 중 하나인 민관 협력체계가 자라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례이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업 집행 상 문제점을 다양한 경로로 지휘부에 알려주었으나 추진 방향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업 대부분을 위탁받은 대학에서 사업 집행 과정에 물의를 빚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K군 또한 협력대학의 적정치 못한 사업비 집행과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품목선정으로 부진지역으로 평가받은 사례이다.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까닭은 대학의 전문가 집단과 시설을 활용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강의실을 짓는 등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내역이 파악되었고, 과잉 생산이 우려되어 모든 평가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녹차재배를 고집스럽게 추진하였다.

(2) 호남권

호남권 부진 지역의 경우 전년도 부진지역 심사 과정에서 지적인 공통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新활력사업의 취지를 자의로 해석하고 있다. ASP모델은 고사하고 단순히 “낙후지역을 잘 살게 하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추진해야겠다.”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의 농촌보조사업처럼 추진했을 때 향후 관리나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 방치한 시설에 “모년 모월 新활력사업비로 지었다”라는 팻말이 붙어있을까 두렵다고 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다.

M군의 경우 '06년에 파산한 일본의 유바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테마파크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고, W군의 경우, 작년에 군수에게 건의하여 SW사업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한 시설사업을 장소만 변경한 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新활력사업의 취지를 자의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新활력사업

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시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H군의 경우는 군수가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될 정도로 관의 역량이 떨어지는 지역이다. 민관 협치 모델을 목표로 수립한 사업계획이 훌륭하다고 하여 계획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행 단계에서 추진단 내부의 민과 관 사이에 자금결재 등의 문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다 끝내 작년 말 추진단을 해체하고자 한 지역이다.

K군의 경우는 그간 전임군수 시절에 엉망으로 추진한 덩터기를 신임군수가 온전히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이다. 서면평가의 내역이 지난 2년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호남권 내에서 꼴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지역이다.

(3) 영남권

영남권 탈락지역의 공통점은 기본계획이나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로 과도한 시설사업을 추진하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량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C군의 경우 과일시장의 개방과 기후 온난화에 따라 향후 작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기본계획이나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로 APC 건립을 추진하다 사업비 삭감(10%)조치를 받고도 집행실적 부진으로 탈락한 사례이다.

K군은 당초 사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나눠먹기식 사업 선정에 따른 부작용과 산림생태체험시설 건립 등 시설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사업비 삭감(70%)조치를 받고도 개선조치가 흡족하지 않아 탈락한 사례이다.

Y군은 곤충산업 육성의 취지는 공감을 받았으나 역시 산업곤충연구소 시설확충과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하여 부진사례로 지적받고 탈락하였다.

또 다른 K군 역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건립에 많은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나 이의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비 삭감(30%)조치를 받고도 개선 내역이 흡족하지 않아 탈락하였다.

4. 평가지표 개발

제2기 新활력사업의 중요한 과제는 성과관리이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 부터 강조하여온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정책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기 新활력시군 전체에 공통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고 지역별 특성화라는 정책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유형은 정책관리전략에 기초하여 **지역혁신역량강화 중점 유형,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창출 중점 유형, 농·도간 활발한 교류협력 중점 유형**으로 나눈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 추구하여 온 정책목표가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었다면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이의 운영과 확산이 정책목표로 등장하여야 하나 성과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시·군이 소득기반조성 사업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혁신역량강화사업, 특히 혁신리더육성사업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2기 新활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혁신리더육성사업의 추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리더집단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실제로 혁신리더육성사업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시·군의 경우에도 혁신리더의 발굴과 육성은 계속하여 강조하여야 한다.

이는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통지표로 설정토록 하고 자체평가지표는 유형별, 지역별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공통지표

新활력사업의 실적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혁신역량강화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이다. 혁신역량강화사업은 크게 Actor 발굴 사업과 System 형성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혁신리더교육으로 대표되는 Actor발굴 사업에 공통적인 지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System 형성 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조직의 형태와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지표보다는 자체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리더교육의 경우 그 평가지표는 그 특성상 교육횟수나 교육인원수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곤 하였다. 그러나 혁신리더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량지표보다 정성적인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혁신리더교육을 1회성 행사와 차별화하고 리더교육

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발굴하여야 한다. 지표는 크게 교육기획, 교육운영, 평가와 환류, 교육성과 활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기획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표 설정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이밖에 교육생 간에 신뢰와 협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육기간과 횟수를 실시하는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 운영 측면에는 교육생 선발, 교육장, 교육 프로그램, 교육 운영 지원 등의 요소가 있다. 교육생은 어느 특정 직종이나 지역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교육장은 회의실 뿐 아니라 숙식이 가능하고 레크리에이션이나 팀워크 형성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이 충실해야 하는데 이론 강의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엮되 리더십과 관련한 자아진단을 필두로 리더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소양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교육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지원팀의 역량도 중요한 요소이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수시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생자치회나 관이 함께 하는 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중요한 요소이다. 매회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음 교육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교육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육성과는 보고서 형태를 갖추어 지역 안팎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혁신리더교육 평가지표(안)

<표 65> 혁신리더교육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1. 교육기획	1.1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여부	10	30
	1.2 교육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1.3 교육 기간과 횟수의 적정성	5	
	1.4 교육 운영 방식의 적정성(위탁 방식 등)	5	
2. 교육운영	2.1 교육생 선발의 객관성	5	40
	2.2 교육 장소의 적합성	5	
	2.3 교육 프로그램의 충실성	25	
	2.4 교육 운영 지원의 적절성	5	
3. 평가와 환류	3.1 교육평가의 적정성	10	20
	3.2 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	10	
4. 교육성과 활용	4.1 교육성과의 파급 효과	4	10
	4.2 교육생 사후 관리	4	
	4.3 교육성과 보고의 질적 충실도	2	

4.2 자체지표

제1기 新활력사업 실적평가지표는 자체지표 개발에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 준다. 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성과 뿐 지역혁신에의 기여도까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평가지표를 고부가가치 6차 산업 모델이나 농도간 교류협력 모델에 응용하면 된다.

자체평가지표(안)

<표 66> 新활력사업 자체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사업기획	1.1 지역적 특성 반영 - 통계 현황 등 분석 근거의 객관성	10
	1.2 정책취지 부합도 - 주민의견 수렴 정도 - ASP모델 적용 여부 -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구성(예산 편성 등)	10
	1.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협력단의 역할 - 민·관 협치 체계의 가능성 - 외부전문가 집단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 전담 조직 구성	10
	1.4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안 반영 - 인근 시군과의 연계 협력 계획 - 동일 품목 육성 시군과의 연계 협력 계획	10
2. 사업집행	2.1 예산 확보 및 집행 실적 - 필요시 지방비, 민자 확보 여부 -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5
	2.2 사업 운영 실적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사업 운영 내용의 충실성 - 민간 참여 활성화 정도	10
	2.3 사업 성과 관리 - 성과지표의 적정성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성과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여부 - 피드백 활성화 정도	5
	2.4 예산 집행의 적절성 - 보고 내용과 집행 내역의 일치 정도 -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과 무관한 집행내역 유무	10
3. 사업성과	3.1 자체 성과 지표 달성도 - 정량적 지표의 달성 수준 - 정성적 지표 성과의 적정성	10
	3.2 대내외 파급효과 - 외부 수상 내역(기간 일치, 사업 관련 여부) -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횟수 - 대내외 홍보의 양과 질	10
	3.3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여도 등 지속가능성 - 민·관 협치의 가능성	10
4. 조정점수	4. 창의성, 혁신성, 노력과 의지 등 종합 고려	±5

V. 제2기 新활력사업의 추진 방향

1. 정책 비전, 미션, 목표의 설정

2기 新활력사업의 주관 부서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新활력사업과, 향토산업이나 지역특화 품목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 간에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림부가 주관해 온 주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新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의 틀 속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혹은 추진 중인 정부 부처의 사업들은 농림부의 新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뿐 아니라 산자부나 중기청 등 타 부서의 사업들까지 망라되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 간에 중복을 방지하면서 상호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시·군 단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군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활력 증진 계획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들 지자체의 기획 역량과 인적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기 新활력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농어촌 지자체들은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책임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 新활력사업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계기로 농어촌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발전 전략과 비전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하였다.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제2기 新활력사업은 지자체의 '기획'과 '실행'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시·군 단위에서 종합적인 농촌 활력 증진 계획이 마련되는 경우에도 新활력사업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新활력사업과 향토산업 육성 계획 등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인 패키

지 사업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新활력사업의 기본 취지와 정책적 지향, 농업의 틀을 넘어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사회개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내용과 혁신적인 거버넌스 육성 방식 등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新활력사업에 대한 일선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 결과와 그간의 축적된 성공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新활력사업은 지자체의 자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와 활력 증진을 위한 유무형의 지역적 자산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적 자산의 효과적인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들에서 제공할 수 없는 新활력사업의 고유한 영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혁신 인재육성이나 참여적 거버넌스 개발 등의 사업은 新활력사업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중앙 정부의 지원은 지역의 자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가를 통한 진화

‘평가’는 新활력사업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新활력사업에서 평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평가라는 행위를 통해 사업의 적절한 기준과 방향, 올바른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사업의 수행 주체는 지자체와 주민이지만,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이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평가 주체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엄정한 평가의 결과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新활력사업은 사업 주체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이 수반되는 자율성이 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평가 기제와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피평가자나 피평가 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재’와 ‘유인’을 수반하는 엄정한 평가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평가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평가가 안고 있는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업 담당자들 또한 평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때 新활력지역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新활력사업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계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수량적 목표만을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 내용을 충실히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창의적 사업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 등이 온전히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계량화 불가능한 전략적 판단과 창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사업 추진 주체들 간에 경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긴장과 위기의식을 유지토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新활력사업의 많은 내용들이 기존의 낙후지역 사업들에서 일찍이 시도되지 않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평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추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달 체계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2기 新활력사업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모니터링, 정보 수집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 혹은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기 新활력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와 자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작업을 간과한 나머지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 체계와 조직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이해로부터 차단된 기관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평가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新활력사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3. 평가 체계의 설계 방향

제2기 新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장·단기 목표와 평가 지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도록 평가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체계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 수행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적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新활력사업에서 자율적 목표 제시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본 사업의 성격상 밑으로부터의 창의성과 기획 및 혁신 역량이 구축되어야만 최소한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체계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 지표의 구성 방식에서도 장·단기 시간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를 위한 목표 변수들을 구성할 경우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즉 1년 정도의 단위에서 평가 가능한 사업 목표와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 목표를 지자체 스스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의 궁극적 잣대가 되는 목표 변수 역시 사업 수행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연구와 정밀한 검토를 거쳐 지자체 스스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新활력사업은 **소득이나 고용,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재무적 목표’와 인적자원 형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문화 발전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목표’ 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두 영역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치밀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다층적 영역의 사업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그들이 지향하는 사업의 정체성과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 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 발전 정책의 역사를 볼 때 **新활력사업은 낙후지역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다. 1기 新활력사업이 추구한 사업의 가치와 목표, 추진 체계 등은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여러 가지 혁신적 시도들을 담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물적 인프라나 융자, 보조금 등 단순하고 수동적인 사업 관행 과감히 탈피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지역 주민의 혁신 역량을 일깨우고, 주변 환경이나 인적 자원 등과의 개방된 협력 체계 구축을 시도한 본 사업의 진행 과정은 분명 새로운 실험이었다.

新활력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성공 사례들과 실험적인 노력들은 지역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낙후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新활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지역 인재와 그들의 지식, 기업가 정신, 지자체와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 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무엇보다 과감한 실험 정신의 성공을 통한 자신감의 배양은 2기 新활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성숙, 혁신 중심 사회로의 발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등 새로운 환경과 정부의 정책적 시도가 낙후지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우러져 지난 3년간 추진되어 온 新활력사업은 이제 1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과 내실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2기 新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1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더불어 1기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2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新활력사업의 성격과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사업 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新활력사업과 여타 농림어업 지원사업 및 연관 부처들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체계적인 장단기 계획과 구상의 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新활력

사업은 그 성격상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한정된 단일 차원적 지향성보다는 그러한 개별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결합하는 복합적 성격의 사업으로 그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기 新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 치열한 고민과 정밀한 계획 속에서 낙후지역 혁신을 도모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핵심 인적자원 육성, 조직 체계 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한 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엄정한 평가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 목표와 성과 뿐 아니라 사업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1기 新활력사업에서 체계적인 자체평가 시스템과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기구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新활력사업을 통해 농업 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다양한 지식과 서비스, 주민들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혜택을 주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新활력사업의 틀을 가져가야 하며, 단순히 재무적 차원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러한 목표들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역량을 육성하며,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적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농촌사회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함께 추구되어야 新활력사업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집행실태 분석

(1) 2005년도

□ 총 평

- 2005년도는 3년단위('05~'07) 新활력사업의 추진 초년도로서
 - 낙후지역의 장기적 자립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 추진조직 정비 등 성공적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음
- 新활력시·군에서는 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많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후
 - 인재양성, 향토자원개발, 지역홍보·마케팅 등 각종 혁신사업들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 사업비 집행실적은, 新활력시·군에서 실행계획수립, 추진조직 정비, 추경 예산 편성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로 하반기에 본격 사업 추진됨에 따라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 '06년도부터는 그간의 성과바탕 위에서 안정적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05년도 추진실적

- '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 292개 단위사업에 총 2,673억원(국비 2,000억, 지방비 379억, 민자등 294)의 사업비 투자, 1,746억원(65.3%) 집행
 - 국비 1,213억(61%), 지방비 291억(77%), 민자등 251억(85%)
- 지방비·민자 등 사업비 확보 현황은
 - 70개 新활력시·군에서 당초 675억원(지방비 379, 민자등 296)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 실제 확보액은 673억원(지방비 379, 민자등 294)으로 민자사업비 2억원 미확보 ※ 장성군
- 사업계획 변경 현황은
 - 사업추진과정상 여건변화 반영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54개 시·군 174개 단위사업 변경승인('05.10.25) 후 추진

○ 사업추진 우수 시·군으로는

- 단체장이 新활력사업의 중요성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 관련조직정비·인력보강·자문단 등을 신속히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사업추진이 우수함

※ 금산군, 장수군, 진안군, 봉화군, 하동군

○ 사업추진 부진 시·군으로는

- 기본계획 부실 수립, 단체장 추진의지 미흡, 담당공무원 역량 부족, 추경예산 편성지연 등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시·군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용진군, 나주시, 군위군, 청송군, 경남 고성군

○ 시·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비교하면

- 시·도 담당공무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수시 워크숍 개최, 지도점검 실시 등 시·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한 지역의 추진실적이 우수

※ 강원, 충남, 전북, 경남

- 담당공무원의 관심 부족 및 시·도의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시·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사업추진이 부진

※ 인천, 충북, 전남, 경북

□ 개선방향

- '05년도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 독려와 지속적인 지원지도를 통해 '06년도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집중관리

- 사업계획 부실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06년도 사업계획 심사과정에서 자문위원·FD 관계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 후 추진토록 지원지도

- '06년도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사업비 및 내용 등에 대해 사전 구체적 검토 후 추진토록 하여 사업비 미확보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05년말 국회 집행실적 보고자료와 실제 결산실적간 차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서 징구 및 주의 조치
(5억원 이상 차이 지역 : 증평, 부여, 고창, 나주, 보성, 장흥, 장성, 진도, 신안, 군위, 예천, 울릉)

시도	시군	'05 新활력사업비(백만원)				'05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267,209	200,000	37,844	29,366	175,479	121,244	29,130	25,105
인천	소계	5,303	5,170	133	0	2,262	2,129	133	0
	강화	2,768	2,635	133	0	1,989	1,856	133	0
	옹진	2,535	2,535	0	0	273	273	0	0
강원	소계	41,377	33,020	3,952	4,405	30,126	23,706	2,287	4,133
	태백	2,315	2,035	0	280	1,708	1,528	0	180
	홍천	2,035	2,035	0	0	1,438	1,438	0	0
	횡성	3,685	2,335	1,350	0	2,014	1,164	850	0
	영월	3,835	2,835	960	40	1,439	1,044	395	0
	평창	2,980	2,735	20	225	2,158	1,920	13	225
	정선	5,521	3,435	376	1,710	5,456	3,370	376	1,710
	철원	2,802	2,035	544	223	2,357	1,930	204	223
	화천	3,335	3,335	0	0	2,021	2,021	0	0
	양구	5,195	3,535	60	1,600	4,155	2,518	37	1,600
	인제	4,295	3,635	528	132	3,365	3,065	300	0
	고성	2,535	2,535	0	0	1,476	1,476	0	0
	양양	2,844	2,535	114	195	2,539	2,232	112	195
충북	소계	17,212	13,275	3,449	488	11,689	8,040	3,312	346
	보은	3,200	2,835	0	365	2,817	2,504	0	313
	영동	2,548	2,535	0	13	1,344	1,331	0	13
	증평	5,687	2,535	3,062	90	3,219	162	3,057	0
	괴산	3,293	3,035	258	0	3,106	2,937	169	0
	단양	2,484	2,335	129	20	1,212	1,106	86	20
충남	소계	13,767	8,905	3,020	1,842	9,909	6,155	2,512	1,242
	금산	4,027	3,135	0	892	2,372	2,080	0	292
	부여	4,485	2,035	2,100	350	3,130	1,188	1,592	350
	청양	5,255	3,735	920	600	4,407	2,887	920	600
전북	소계	40,287	28,965	3,503	7,820	28,743	18,077	3,339	7,328
	남원	7,892	2,735	1,988	3,169	7,483	2,335	1,979	3,169
	김제	2,335	2,035	300	0	1,535	1,335	200	0
	진안	5,805	4,135	2,767	1,394	4,033	2,519	271	1,244
	무주	3,080	3,035	17	28	2,316	2,271	17	28
	장수	5,286	3,935	736	615	4,536	3,185	736	615
	임실	3,881	3,335	85	461	2,037	1,617	69	351
	순창	4,468	3,535	80	853	2,446	1,560	65	821
	고창	3,905	3,285	20	600	1,836	1,234	2	600
부안	3,635	2,935	0	700	2,521	2,021	0	500	

시도	시군	'05 新활력사업비(백만원)				'05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전남	소계	61,965	47,795	10,229	9,941	35,074	23,588	9,230	2,256
	나주	2,035	2,035	0	0	110	110	0	0
	담양	3,935	3,135	250	550	2,101	1,827	100	174
	곡성	3,811	3,035	526	250	2,415	1,690	492	233
	구례	3,478	3,035	443	0	2,720	2,297	423	0
	고흥	3,239	2,535	0	704	2,121	1,417	0	704
	보성	3,335	3,335	0	0	1,225	1,225	0	0
	화순	2,943	2,335	239	369	2,449	1,846	234	369
	장흥	3,035	3,035	0	0	266	266	0	0
	강진	4,036	3,035	311	690	3,164	2,255	311	598
	해남	3,035	2,835	200	0	285	285	0	0
	영암	3,435	2,635	800	0	2,971	2,171	800	0
	무안	3,775	2,035	1,590	150	3,265	1,725	1,390	150
	함평	3,485	3,335	150	0	2,167	2,107	60	0
	장성	7,234	2,035	5,171	28	5,678	479	5,171	28
	완도	3,835	2,835	300	700	1,735	1,735	0	0
진도	4,284	3,535	249	500	1,878	1,629	249	0	
신안	3,035	3,035	0	0	524	524	0	0	
경북	소계	51,939	38,455	8,293	5,191	30,219	21,002	4,763	4,454
	상주	3,475	2,335	100	1,040	3,068	1,928	100	1,040
	문경	2,765	2,335	200	230	2,265	2,075	60	130
	군위	3,035	3,035	0	0	0	0	0	0
	의성	4,996	2,835	2,161	0	3,362	1,494	1,868	0
	청송	7,544	3,035	3,996	513	2,217	415	1,298	513
	영양	3,435	3,435	0	0	2,192	2,192	0	0
	영덕	3,035	2,535	200	300	2,000	1,800	200	0
	청도	5,543	3,435	130	1,978	4,701	2,880	130	1,691
	고령	2,436	2,335	101	0	1,523	1,441	82	0
	성주	3,405	2,835	520	50	2,755	2,398	357	0
	예천	3,035	2,835	200	0	1,083	883	200	0
	봉화	5,510	4,135	295	1,080	3,711	2,336	295	1,080
	울릉	3,725	3,335	390	0	1,342	1,160	182	0
경남	소계	35,359	24,415	5,265	5,679	27,448	18,547	3,555	5,346
	의령	5,025	3,035	1,879	111	2,363	2,130	225	8
	창녕	2,095	2,035	60	0	1,355	1,349	6	0
	고성	2,553	2,535	18	0	1,298	1,282	16	0
	남해	2,976	2,535	0	441	1,945	1,504	0	441
	하동	4,321	3,135	0	1,186	3,664	2,708	0	956
	산청	6,154	3,235	2,195	724	5,742	2,823	2,195	724
	함양	3,035	3,035	0	0	2,906	2,906	0	0
	거창	2,565	2,035	13	517	1,840	1,310	13	517
합천	6,635	2,835	1,100	2,700	6,335	2,535	1,100	2,700	

(2) 2006년도

□ 총 평

- 사업 2년차로 新활력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적응·인식제고 등으로 보다 안정적 기반 위에서 사업추진
 -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전담 사업단 구성, 산·학·연 협조 체제 등 지속력 있는 혁신체계 구축
- 선도사업을 생산 - 가공 - 유통 - 체험·관광 등 다각적인 소득 창출사업으로 융합하여 지역자원 특성화 산업으로 육성
 - 단순 생산수준에서 유통구조 개선, 기업가적 마케팅 도입, 투어리즘 등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산업 활성화 추진
- 일부 시·군은 지역의 장기적·내생적 자립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단기간의 가시적·외형적 사업 추진
 - 지역혁신협의회 형식적 행사위주 활동, 지역혁신 리더 발굴·육성 부진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미구축
 - 과도한 H/W사업, 단순 보조(지원)사업 등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기존 농림사업과의 차별화 부족

□ 세부 추진실적

- 사업비 : 총 4,460억원(국비 3,160, 지방비 634, 민자 666)
 - '06년 사업비 2,927억원(국비 1,853, 지방비 532, 민자 542)
 - '05년 이월사업비 1,533억원(국비 1,307, 지방비 102, 민자 124)
- '06년 사업비로 국비 지원액 1,900억원, 시·군 자체적으로 지방비 532억원, 민자 542억원 등 총 2,927억을 확보
 - 이중 2,237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여 76%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국비(71%)<지방비(80%)<민자(90%) 순서임
- 엄정한 사업관리를 위해 6개 사업 부진 시·군 국비 지원액을 삭감, 불용처리
 - 완도·영덕·청송은 사업비 10%, 경남 고성군 20%, 용진군 50%, 군위군 70%를 각각 삭감, 47.5억원을 불용처리

- 사업여건 변화 반영, 시·군 자체 검토결과 성과 불확실한 사업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심사, 승인
 - 사업계획 변경신청 42개 시·군,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비 조정 신청 19개 시·군을 승인, 후속조치로 변경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본보조 2,224백만원을 경상보조로 자체 전용
- '06년 新활력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부여, 新활력사업비로 투자
 - 사업추진 태세, 사업추진 실적 등 총 5개 부문 10개 항목을 평가, 26개 우수 시·군을 선정
 - A등급 8개 시·군에 각 9억원, B등급 8개 시·군 각 6억원, C등급 10개 시·군에 각 3억원 총 150억원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시·군은 인센티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
- '05년 이월사업비 1,533억원중 1,225억원(국비 1,067, 지방비 48, 민자 110)을 이월 집행
 - '05년은 사업추진 초년도로서 '05.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월액이 다소 많으나
 - 적정 사업추진을 위해 매월 사업비 집행현황 파악 및 조기 집행을 독려하여 80% 완료(국비 82%, 지방비 47%, 민자 89%)

□ 개선 방향

- '06년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와 지속적인 지원·지도를 통해 '07년중 조기 완료토록 유도
- 사업계획 부실,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은 정상 사업추진 가능토록 집중 관리
 -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수정보완 후 추진
 - 현지방문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사업추진 현황 지속 관리

시도	시군	'06년 사업비(백만원)				'06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292,751.5	185,250	53,241	54,260.5	223,713.8	132,143.3	42,674	48,896.5
인천	소계	3,329	3,250	6	73	2,492	2,413	6	73
	강화	2,079	2,000	6	73	1,746	1,667	6	73
	옹진	1,250	1,250	0	0	746	746	0	0
강원	소계	40,885	31,400	4,740	4,745	30,555	23,063	4,043	3,449
	태백	2,645	2,000	237	408	2,335	1,900	27	408
	홍천	2,310	2,000	150	160	1,979	1,670	149	160
	횡성	3,400	2,000	1,400	0	3,318	1,925	1,393	0
	영월	3,900	2,500	1,060	340	3,269	1,929	1,000	340
	평창	3,090	2,900	10	180	1,774	1,585	9	180
	정선	4,790	2,800	579	1,411	4,078	2,541	564	973
	철원	2,218	2,000	90	128	1,061	899	40	122
	화천	4,382	3,600	580	202	2,974	2,462	310	202
	양구	4,742	3,000	120	1,622	1,785	977	38	770
	인제	3,431	3,000	431	0	3,431	3,000	431	0
	고성	2,500	2,500	0	0	1,994	1,994	0	0
	양양	3,477	3,100	83	294	2,557	2,181	82	294
	충북	소계	19,843	13,200	5,163	1,480	16,986	10,893	4,913
보은		3,696	2,800	0	896	3,067	2,471	0	596
영동		2,500	2,500	0	0	2,162	2,162	0	0
증평		5,011	3,400	1,067	544	3,305	1,891	870	544
괴산		5,877	2,500	3,377	0	5,875	2,498	3,377	0
단양		2,759	2,000	719	40	2,577	1,871	666	40
충남	소계	13,237	8,500	554	4,183	7,617	4,261	276	3,080
	금산	3,335	2,000	39	1,296	2,351	1,016	39	1,296
	부여	3,563	2,600	258	705	2,808	1,866	237	705
	청양	6,339	3,900	257	2,182	2,458	1,379	0	1,079
전북	소계	62,888	26,400	5,892	9,359.5	32,996.7	18,832.2	5,474	8,690.5
	남원	7,952	2,000	2,687	3,265	7,923	1,971	2,687	3,265
	김제	3,130	2,000	1,130	0	2,584	1,555	1,029	0
	진안	4,525.5	3,000	0	1,525.5	4,027.7	2,592.2	0	1,435.5
	무주	3,316	3,000	288	28	2,738	2,487	223	28
	장수	4,852	3,900	427	525	3,751	2,799	427	525
	임실	5,056	3,600	335	1,121	2,852	1,980	184	688
	순창	4,715	3,000	680	1,035	3,141	1,668	584	889
	고창	4,205	2,800	345	1,060	4,110	2,710	340	1,060
	부안	3,900	3,100	0	800	1,870	1,070	0	800

시도	시군	'06년 사업비(백만원)				'06년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전남	소계	56,212	45,650	5,114	5,448	37,082	29,198	2,635	5,249
	나주	3,400	2,000	1,400	0	508	508	0	0
	담양	3,112	2,500	250	362	2,476	1,864	250	362
	곡성	3,571	3,300	271	0	2,549	2,549	0	0
	구례	3,000	3,000	0	0	2,870	2,870	0	0
	고흥	2,783	2,500	84	199	2,049	1,965	84	0
	보성	3,000	3,000	0	0	1,710	1,710	0	0
	화순	2,063	2,000	0	63	558	495	0	63
	장흥	3,500	3,300	200	0	1,328	1,256	72	0
	강진	5,000	3,000	774	1,226	4,979	2,988	765	1,226
	해남	4,235	2,500	919	816	2,734	1,200	718	816
	영암	3,200	2,600	500	100	3,200	2,600	500	100
	무안	3,395	2,900	160	335	2,357	1,862	160	335
	함평	2,650	2,500	150	0	1,192	1,112	80	0
	장성	4,353	2,000	6	2,347	3,920	1,567	6	2,347
	완도	2,650	2,250	400	0	1,972	1,972	0	0
	진도	3,300	3,300	0	0	1,708	1,708	0	0
신안	3,000	3,000	0	0	972	972	0	0	
경북	소계	57,798	33,550	16,316	7,932	43,408.9	25,772.9	11,200	6,436
	상주	3,170	2,000	110	1,060	2,517	1,347	110	1,060
	문경	4,980	2,300	1,950	730	4,680	2,000	1,950	730
	군위	2,203	900	1,053	250	1,647	560	837	250
	의성	4,468	2,500	1,968	0	4,026	2,058	1,968	0
	청송	7,655	2,700	3,824	1,131	1,844	857	419	568
	영양	5,311	3,000	1,405	906	4,512	2,349	1,257	906
	영덕	3,170	2,250	720	200	3,170	2,250	720	200
	청도	6,237	3,400	410	2,427	4,127.9	2,210.9	390	1,527
	고령	2,713	2,600	113	0	2,113	2,000	113	0
	성주	5,410	3,100	1,115	1,195	5,410	3,100	1,115	1,195
	예천	5,108	2,500	2,608	0	3,441	2,160	1,281	0
	봉화	3,833	3,300	500	33	2,381	1,881	500	0
	울릉	3,540	3,000	540	0	3,540	3,000	540	0
경남	소계	59,796	23,300	15,456	21,040	52,576.2	17,710.2	14,127	20,739
	의령	3,725	3,000	725	0	2,307	2,282	25	0
	창녕	3,069	2,000	1,037	32	1,834	1,251	560	23
	고성	1,403	1,400	3	0	1,024	1,021	3	0
	남해	7,179	2,500	1,229	3,450	7,179	2,500	1,229	3,450
	하동	4,520	2,900	850	770	3,190	1,770	850	570
	산청	28,717	3,400	10,082	15,235	28,685	3,368	10,082	15,235
	함양	3,000	3,000	0	0	1,488	1,488	0	0
	거창	3,303	2,300	330	673	2,324	1,565	178	581
합천	4,880	2,800	1,200	880	4,545.2	2,465.2	1,200	880	

(3) 2005 이월사업비 집행실적

시도	시군	'05년 이월사업비(백만원)				'06년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총 계		153,366.5	130,724.9	10,236.9	12,404.7	122,542.1	106,685.4	4,790	11,066.7
인천	소계	3,258.2	3,258.2	0.0	0.0	2,062	2,062.0	0	0.0
	강화	826.2	826.2	0.0	0.0	809	809.0	0	0.0
	옹진	2,432.0	2,432.0	0.0	0.0	1,253	1,253.0	0	0.0
강원	소계	20,799.0	18,139.0	2,154.0	506.0	18,109	16,068.0	1,652	389.0
	태백	1,170.0	1,120.0	0.0	50.0	971	921.0	0	50.0
	홍천	597.0	597.0	0.0	0.0	565	565.0	0	0.0
	횡성	2,385.0	1,885.0	500.0	0.0	2,367	1,867.0	500	0.0
	영월	2,664.0	2,059.0	565.0	40.0	2,552	1,992.0	520	40.0
	평창	2,084.0	1,967.0	0.0	117.0	1,226	1,226.0	0	0.0
	정선	2,894.0	2,544.0	350.0	0.0	2,813	2,463.0	350	0.0
	철원	2,083.0	1,461.0	455.0	167.0	1,588	1,421.0	0	167.0
	화천	2,117.0	2,117.0	0.0	0.0	2,117	2,117.0	0	0.0
	양구	1,137.0	1,113.0	24.0	0.0	403	379.0	24	0.0
	인제	985.0	625.0	228.0	132.0	985	625.0	228	132.0
	고성	2,148.0	2,148.0	0.0	0.0	2,131	2,131.0	0	0.0
양양	535.0	503.0	32.0	0.0	391	361.0	30	0.0	
충북	소계	8,109.0	7,726.0	140.0	243.0	7,783	7,485.0	55	243.0
	보은	1,029.0	876.0	0.0	153.0	966	813.0	0	153.0
	영동	1,814.0	1,814.0	0.0	0.0	1,776	1,776.0	0	0.0
	증평	2,524.0	2,434.0	0.0	90.0	2,524	2,434.0	0	90.0
	괴산	776.0	691.0	85.0	0.0	618	618.0	0	0.0
	단양	1,966.0	1,911.0	55.0	0.0	1,899	1,844.0	55	0.0
충남	소계	5,118.0	4,201.0	400.0	517.0	2,991	2,080.0	394	517.0
	금산	2,913.0	2,396.0	0.0	517.0	1,691	1,174.0	0	517.0
	부여	1,471.0	1,071.0	400.0	0.0	1,300	906.0	394	0.0
	청양	734.0	734.0	0.0	0.0	0	0.0	0	0.0
전북	소계	23,963.3	19,847.7	322.9	3,792.7	21,737.7	17,993	204	3,540.7
	남원	1,588.0	1,054.0	9.0	525.0	1,549	1,015.0	9	525.0
	김제	1,534.0	1,434.0	100.0	0.0	1,133	1,133.0	0	0.0
	진안	4,009.4	3,123.7	6.0	879.7	3,842.4	2,965.7	6	870.7
	무주	2,407.0	2,407.0	0.0	0.0	2,402	2,402.0	0	0.0
	장수	2,233.0	1,316.0	94.0	823.0	2,231	1,314.0	94	823.0
	임실	3,547.9	3,006.0	80.9	461.0	3,201.3	2,814.3	80	307.0
	순창	2,745.0	2,486.0	15.0	244.0	2,372	2,167.0	0	205.0
	고창	2,625.0	2,447.0	18.0	160.0	2,533	2,358.0	15	160.0
부안	3,274.0	2,574.0	0.0	700.0	2,474	1,824.0	0	650.0	

시도	시군	'05년 이월사업비(백만원)				'06년 집행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전남	소계	35,618	32,206	1,054	2,358	23,975	21,889	690	1,396
	나주	1,973	1,973	0	0	327	327	0	0
	담양	2,750	2,224	150	376	2,361	1,835	150	376
	곡성	1,446	1,395	34	17	1,421	1,370	34	17
	구례	1,383	1,343	40	0	1,134	1,094	40	0
	고흥	2,240	1,737	0	503	2,240	1,737	0	503
	보성	2,403	2,403	0	0	1,550	1,550	0	0
	화순	603	603	0	0	11	11	0	0
	장흥	2,839	2,839	0	0	1,271	1,271	0	0
	강진	1,593	1,331	0	262	0	0	0	0
	해남	2,778	2,578	200	0	2,590	2,390	200	0
	영암	1,294	1,294	0	0	1,294	1,294	0	0
	무안	1,432	1,192	240	0	1,347	1,131	216	0
	함평	1,646	1,556	90	0	1,399	1,349	50	0
	장성	1,608	1,608	0	0	1,540	1,540	0	0
	완도	3,798	2,798	300	700	1,735	1,735	0	0
	진도	3,058	2,558	0	500	1,146	646	0	500
신안	2,774	2,774	0	0	2,609	2,609	0	0	
경북	소계	36,924	30,343	3,930	2,651	28,706.4	24,595.4	1,460	2,651
	상주	1,818	1,818	0	0	114	114	0	0
	문경	2,065	1,835	100	130	2,065	1,835	100	130
	군위	2,984	2,984	0	0	2,399	2,399	0	0
	의성	2,137	1,977	160	0	2,137	1,977	160	0
	청송	5,635	3,035	2,600	0	701	571	130	0
	영양	2,440	2,440	0	0	2,043	2,043	0	0
	영덕	2,887	2,387	200	300	2,887	2,387	200	300
	청도	3,805	2,229	98	1,478	3,797.4	2,221.4	98	1,478
	고령	1,634	1,572	62	0	1,634	1,572	62	0
	성주	1,341	970	321	50	1,341	970	321	50
	예천	2,629	2,629	0	0	2,294	2,294	0	0
	봉화	4,201	3,508	0	693	3,946	3,253	0	693
울릉	3,348	2,959	389	0	3,348	2,959	389	0	
경남	소계	19,577	15,004	2,236	2,337	17,178	14,513	335	2,330
	의령	4,508	2,529	1,876	103	2,318	2,215	0	103
	창녕	860	802	58	0	835	802	33	0
	고성	2,480	2,478	2	0	2,419	2,417	2	0
	남해	1,031	1,031	0	0	1,031	1,031	0	0
	하동	2,891	2,081	0	810	2,873	2,070	0	803
	산청	2,225	1,679	0	546	2,225	1,679	0	546
	합양	1,778	1,778	0	0	1,778	1,778	0	0
거창	1,360	1,038	0	322	1,255	933	0	322	
합천	2,444	1,588	300	556	2,444	1,588	300	556	

(4) 新활력 시·군 인센티브 현황

광역	시·군	국고 기본 지원액	인센티브				총계
			사업 계획평가	2005 실적평가	2005 소계	2006 실적평가	
인천	강화군	2,000	0	600	600	0	600
	옹진군	2,500	0	0	0	0	0
강원	고성군	2,500	0	0	0	0	0
	양구군	3,000	500	0	500	0	500
	양양군	2,500	0	0	0	600	600
	영월군	2,500	300	0	300	0	300
	인제군	3,000	300	300	600	0	600
	정선군	2,500	500	400	900	300	1,200
	철원군	2,000	0	0	0	0	0
	태백시	2,000	0	0	0	0	0
	평창군	2,000	300	400	700	900	1,600
	홍천군	2,000	0	0	0	0	0
	화천군	3,000	300	0	300	600	900
	횡성군	2,000	300	0	300	0	300
	충북	괴산군	2,500	500	0	500	0
단양군		2,000	300	0	300	0	300
보은군		2,500	0	300	300	300	600
영동군		2,500	0	0	0	0	0
증평군		2,500	0	0	0	900	900
충남	금산군	2,000	500	600	1,100	0	1,100
	부여군	2,000	0	0	0	600	600
	청양군	3,000	300	400	700	900	1,600
전북	고창군	2,500	500	300	800	300	1,100
	김제시	2,000	0	0	0	0	0
	남원시	2,000	300	400	700	0	700
	무주군	3,000	0	0	0	0	0
	부안군	2,000	0	400	400	600	1,000
	순창군	3,000	500	0	500	0	500
	임실군	3,000	300	0	300	600	900
	장수군	3,000	300	600	900	900	1,800
진안군	3,000	500	600	1,100	0	1,100	

광역	시군	국고 기본 지원액	인센티브				
			사업 계획	2005 실적	2005 소계	2006	총계
전남	강진군	3,000	0	0	0	0	0
	고흥군	2,500	0	0	0	0	0
	곡성군	3,000	0	0	0	300	300
	구례군	3,000	0	0	0	0	0
	나주시	2,000	0	0	0	0	0
	담양군	2,500	300	300	600	0	600
	무안군	2,000	0	0	0	900	900
	보성군	3,000	300	0	300	0	300
	신안군	3,000	0	0	0	0	0
	영암군	2,000	0	600	600	600	1,200
	완도군	2,500	300	0	300	0	300
	장성군	2,000	0	0	0	0	0
	장흥군	3,000	0	0	0	300	300
	진도군	3,000	500	0	500	300	800
	함평군	2,500	500	300	800	0	800
	해남군	2,500	300	0	300	0	300
화순군	2,000	300	0	300	0	300	
경북	고령군	2,000	0	300	300	600	900
	군위군	3,000	0	0	0	0	0
	문경시	2,000	300	0	300	300	600
	봉화군	3,000	500	600	1,100	300	1,400
	상주시	2,000	300	0	300	0	300
	성주군	2,500	300	0	300	600	900
	영덕군	2,500	0	0	0	0	0
	영양군	3,000	0	400	400	0	400
	예천군	2,500	300	0	300	0	300
	울릉군	3,000	300	0	300	0	300
	의성군	2,500	300	0	300	0	300
	청도군	2,500	500	400	900	900	1,800
청송군	3,000	0	0	0	0	0	
경남	거창군	2,000	0	0	0	300	300
	고성군	2,000	500	0	500	0	500
	남해군	2,500	0	0	0	0	0
	산청군	2,500	300	400	700	900	1,600
	의령군	3,000	0	0	0	0	0
	창녕군	2,000	0	0	0	0	0
	하동군	2,500	500	600	1,100	900	2,000
	함양군	3,000	0	0	0	0	0
합천군	2,500	0	300	300	300	600	

<참고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新활력사업 정책교본』. 미출간 단행본.
_____. 2004. 7.15 「신 활력지역발전구상」.
_____. 2004.9 「新활력사업 추진지침」.
_____. 2005. 2. 2. 「新활력사업 지역순회설명회 평가보고서」.
_____. 2005. 2. 5. 「新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SAP모델」
_____. 2006. 1. 「新활력사업 추진주체(Actor)의 체계적 육성
방안 연구
- 김선기, 김현호. 2006. “新활력사업의 추진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 김현호, 한표환. 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모성은. 2004. “新활력사업의 추진과제와 발전 방향”. 2004 新활력사업 제1
차 세미나. pp41~104. 한국지역경제학회.
- 박주영, 송미령. 2007. “新활력사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농촌경제 30권
1호
- 송미령. 2004. “新활력지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도시문제」 제39권
431호 : pp32~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우윤석. 2004.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新활력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43권: pp21~36. 국토연구원.
- 행정자치부. 2006. “2005년도 新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_____. 2004. 10. 「新활력사업 추진지침」.
_____. 200.4 12 「新활력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요령」